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영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광주지역 일부 대학 기숙사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식습관 및
선호도 조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한아름

광주지역 일부 대학 기숙사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식습관 및
선호도 조사

한영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한아름

인 준 서

한아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대학 기숙사 급식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기숙사 급식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받는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과 다르게 사업체 급식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규제 없이 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2군데의 대학교 기숙사 급식소를 대상으로 기숙사 급식 서비스의 만족도와 371명의 급식 대상자들의 식습관 및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숙사 급식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숙사 급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숙사 급식 식습관 조사와 관련하여 42.5%가 하루에 3끼 모두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항목에 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2.3학년보다 기숙사 거주기간에서는 1-2학기인 학생이 3학기 이상인 학생들보다 빈도가 많이 나타났고 한달용돈 씬셈이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인 학생들이 10만원 이상인 학생들보다, 출신 지역 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학생들이 경상권이나 호남권 학생들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소 기숙사 급식을 몇 번 이용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하루 3번’이 42.1%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숙사 급식 이용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년이 낮고 기숙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기숙사 급식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자는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식하는 끼니에 대해서는 ‘아침’과 ‘저녁’의 빈도가 많았고 남학생의 경우 ‘아침’이, 여학생의 경우 ‘저녁’이 빈도가 많았다.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42.0%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했고 39.1%가 ‘식욕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편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안한다’는 응답자가 46.4%, ‘음식에 따라 조금 한다’는 응답자가 42.9%으로 나타났고 ‘음식에 따라 조금 한다’는 응답은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 한 달 용돈 씬씀이가 1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안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과 2학년이상,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 한 달 용돈 씬씀이가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편식하는 식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생선’이 높게 나타났고 ‘과일’과 ‘유제품’은 낮게 나타났다.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느냐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한 응답자는 43.1%, ‘아니다’라고 한 응답자는 36.2%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응답자가 20.7%로 나타났다.

음식을 싱겁게 먹느냐에 관한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자가 46.9%,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43.9%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응답자는 9.3%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음식의 조리 방법으로 ‘볶음, 튀김’이 51.4%으로 빈도가 많았으며, 새콤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느냐에 관한 질문에 47.4%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남학생은 53.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고 여학생은 46.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간식 횟수에 ‘2회 이상’이 35.7%, ‘먹지 않는다’가 33.8%, ‘1회’가 30.5%로 나타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42.4%가 '2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했고 여학생의 경우 50.3%가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학년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1회', 2학년 이상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먹지 않는다'가 빈도가 많았다.

간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은 37.6%로 '라면'의 빈도가 높았으며, 외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은 '육류'와 '분식류'가 빈도가 많았다.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마시냐는 질문에 '안한다'는 응답자는 31.9%가 나타났다.

유제품 섭취빈도에 대한 질문에 '주3회 이상'이 26.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안한다'는 응답자가 26.0%, '주2-3회'가 25.1%, '1회'는 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음주', '결식'의 빈도가 높았으며,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결식'이 많았으며, 여학생과 2학년 이상,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경우엔 '음주'의 빈도가 많았다.

기숙사 급식 메뉴 기호도 조사에서 국, 찌개, 탕류에 대해서는 '설렁탕', '감자탕', '삼계탕', '김치찌개' 등의 빈도가 높았고 '오징어국', '썩갠오뎅국', '시금치맑은국', '다시마무채국', '복어미역국'은 빈도가 낮았으며, 주식류에 대해서는 '자장면', '오므라이스', '냉면' 등의 빈도가 높았고 '차조밥', '보리밥', '수수밥', '검정콩밥'의 빈도는 낮았다.

부찬류의 기호도 조사에서는 '계란찜', '장조림', '계란말이'는 빈도가 높았고 '오이생채'와 '미역줄기볶음'은 빈도가 가장 낮았다.

주찬류에 대해서는 '돈가스', '탕수육'의 빈도는 높았고 '고등어조림', '조기구이'의 빈도는 낮았다.

기숙사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음식, 메뉴, 위생, 서비스로 나누어 조

사한 결과 전 분야에 대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2학년 이상의 학생들 보다 1학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숙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기숙사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다양한 메뉴제공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는 장점이 있지만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음식 메뉴에 대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기숙사 급식의 이용횟수가 많아질수록 급식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 기숙사 급식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과 더불어 급식 대상자들의 기호도를 고려한 식단 개선으로 기숙사 급식의 이용률을 높이고 더불어 기숙사 급식의 만족도를 높을 수 있고 개선해 나가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1. 서언	1
2. 문헌고찰	5
1) 대학 기숙사 급식의 개념과 중요성	5
2) 대학생들의 식습관.....	8
3) 급식 서비스 품질의 개념.....	12
4) 고객 만족의 중요성.....	15
5) 대학 급식의 품질과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18
II . 연구대상 및 방법.....	21
1. 조사대상 및 기간.....	21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23
3. 통계분석.....	24
III . 결과 및 고찰.....	25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25
2.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조사.....	28
1) 식습관 조사.....	28
2) 기숙사 급식 이용횟수.....	31
3) 기숙사 급식을 하루에 2회 이용하는 이유.....	34
4) 기숙사 급식을 하루에 1회 이용하는 이유.....	36

5)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이유	38
6) 결식하는 끼니에 관한 사항	40
7)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관한 사항	43
8) 편식 여부에 관한 사항	46
9) 편식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	48
10) 자극적인 음식 섭취 빈도	50
11) 싱겁게 음식을 먹는지에 관한 사항	52
12) 선호하는 음식의 조리 방법	55
13) 새콤달콤한 음식을 먹는 빈도	57
14) 간식 섭취 빈도	59
15) 섭취빈도가 높은 간식	61
16) 외식 빈도	63
17) 외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	65
18) 음주 빈도	67
19) 유제품 섭취 빈도	69
20) 커피 섭취 빈도	71
21)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73
3. 급식 기호도에 관한 사항	75
1) 국, 찌개, 탕류 기호도 조사	75
2) 주식류 기호도 조사	77
3) 부찬류 기호도 조사	79
4) 김치류 기호도 조사	81
5) 후식류 기호도 조사	83
6) 주찬류 기호도 조사	85

4. 급식 만족도 조사	87
1) 음식 만족도 조사	87
2) 메뉴 만족도 조사	89
3) 위생 만족도 조사	91
4) 서비스 만족도 조사	93
IV. 결론 및 제언	95

List of Tables

Table 1. The factor about questionnaire configuration contents	22
Table 2. The factor about general information of investigation subject	27
Table 3. The factor about whether or not regular eating	30
Table 4. The factor frequency of using dormitory school lunch	33
Table 5. The reason which uses a dormitory school lunch at two time s in a day	35
Table 6. The reason which uses a dormitory school lunch at one time in a day	37
Table 7. The factor about reason using a school lunch fact	39
Table 8. About whether to going without a meal fact	42
Table 9. The factor reason skipping a meal	45
Table 10. The fact or of whether or not picky	47
Table 11. The fact or of kinds of unbalanced foods	49
Table 12. Frequency of in taking stimulating food	51
Table 13. The degree of taking insufficient salted food	54
Table 14. Cooking method of the food which prefers	56
Table 15. Frequency of in taking sour food	58
Table 16. Frequency of taking snacks	60
Table 17. The snacks that eat lots of time	62
Table 18. Frequency of eating out	64
Table 19. The food which takes frequently in eating out	66
Table 20. Frequency of drinking	68
Table 21. Frequency of in taking dairy	70

Table 22. Frequency of in taking coffee	72
Table 23. The factor causing dietary negatively	74
Table 24. Survey of preference about bureau, stew, tangryu	76
Table 25. Survey of preference about jusikryu	78
Table 26. Survey of preference about buchanyu	80
Table 27. Survey of preference about kimchi	82
Table 28. Survey of preference about husikryu	84
Table 29. Survey of preference about juchanyu	86
Table 30.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food	88
Table 31.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menu	90
Table 32.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hygiene	92
Table 33.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services	94

I. 서론

1. 서언

대학교 기숙사 급식은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학업과 생활을 연계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cCool 등 1994).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식생활의 양상이 변화되고 잦은 외식 등으로 인하여 식품접객업과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Ahn DH 등 2007).

이로 인해서 인간의 식생활은 개인과 가족의 식생활과 식습관,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보다 여유 있고 풍족한 식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로 인하여 일부 사회계층에서 에너지의 불균형 등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Yu YS 1981).

우리나라의 대학교 기숙사 급식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받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식과는 다르게 사업체 급식으로 분류되어서(Yang IS 등 2000) 특별한 규제나 통제 없이 학교의 직영 체제나 위탁 경영의 체제로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Yang IS 등 1993).

외식산업 발달과 더불어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음식의 질과 양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요구하며, 수준 높은 음식과 서비스를 원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노력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Choi EN 2010).

또한 대학생들은 식생활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생활을 본인의 의지와 생각대로 자유롭게 관리함으로 잦은 음주, 흡연, 불

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 음식 과다 섭취 등으로 식생활의 부조화를 초래하고(Zuckerman 등 1986, Beerman 1991) 또한 대학생의 식생활은 사회적인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자신의 식생활을 책임지던 부모와 학교 급식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던 초, 중, 고교 시절의 규칙적이던 학창시절과 반대로(Choi EN 2010) 아르바이트, 학교수업시간, 지리적인 이점, 경제적인 여건과 기호를 우선시 한 식사 등의 영향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적되고 있다(Hong & Lee 2007).

이들 대학생들의 식생활은 성인기에도 습관화 될 태도를 나타내므로,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된 영양섭취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Shin MK, Seo ES 1995).

이와 같은 대학교 기숙사 급식의 내적인 여건과 다르게 외부의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 대학교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이용자 대부분이 20대의 신세대들로 외식산업을 접할 기회와 선택의 범위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로워지면서 외부 상업성 급식소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음식에 있어서도 다양해져 시각적, 미각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Dorhman 등 1993).

더욱이 급속하게 변화는 식문화로 인하여 외식의 빈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다양하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요구하고 급식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학생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식소 메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 하였다(Yang IS 1995).

균형된 영양의 섭취는 심신의 건강유지는 물론 질병예방과 정상적인 생활유지에 중요한 요건으로 영양지식과 식품의 선택에 대한 태도와 식습관 등과 관련이 있지만(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7) 실제로는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소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가 많고 대학생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Huh 1990, Moon 1996).

대학교 기숙사 급식의 성장에 있어서는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의 품질 개선은 물론 서비스 품질 만족도와 학생들의 다양한 메뉴의 개발과 확보,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Kahn 1987).

또한 1인 1회 이상 밖에서 식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의 식사 내에서의 식사형태가 대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학교의 급식소는 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급식 대상자들의 기호도 충족과 급식 만족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Jae SY 1994).

기숙사 급식에서 급식에 만족을 주는 영향과 서비스의 품질특성과 급식대상자들의 기호도와 선호도를 분석하여서 핵심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Kim HK 1997, Yi YJ 1999, Ahn KB 2008).

기숙사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실태와 만족도 및 기호도,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고등학교(Shin SM 2010, Hwang MS 2010, Lee KH 등 2010, Kim YH 등 2009, Song Hwa 2009), 대학교 기숙사 급식을 대상으로 영양섭취실태(Kang KJ 2001, Kim JH 2005, Choi SY 2010, Choi EN 2010, Cho JM 2009, Jeong Hun 2005, Kim JH 2005, Kim HJ 2001, Do HW 2001) 등의 최근 논문이 있지만 급식에 대한 급식대상자의 선호도와 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급식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일부 대학교 기숙사 급식 만족도와 기호도 및 선호도 조사를 함으로써 기숙사 급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기숙사 급식 이용을 증가시키고 급식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식단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의 일부 대학 기숙사를 중심으로 기

숙사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급식대상자들의 기호도 및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대학 기숙사 급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급식 만족도와 식생활을 파악해 봄으로써 기숙사 급식 만족도 향상과 바람직한 급식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1. 대학 기숙사 급식의 개념과 중요성

기숙사 급식이란 학교 캠퍼스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일 3식의 제공을 기본으로 하여 1주일에 7일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Mc Cool 1994, IM MY 2010).

대학 기숙사 급식은 12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시작되었으며(West 1977), 우리나라 기숙사급식의 시작은 1894년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1980년 이화학당의 기숙사인 “양관”에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후 1960년에 이르러 많은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학생들의 단체 생활과 기숙사급식이 실시되었다(Kim HY 1998, Choi EN 2010).

대학 급식은 저렴한 가격과 영양적인 고품질의 메뉴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충분한 영양 공급과 건강증진과 학업능률과 직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급식이다(Park BK 2006, Kim MJ 2004).

Dorhman(1993)은 대학 급식의 문제점으로 급식 소비자의 욕구의 다양화와 고급화, 식품비, 인건비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교 내의 등록 감소와 외부음식의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수입 감소를 지적하며, 능력 있고 자질 있는 관리자의 근무기피 현상이 대학 급식의 어려운 실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Chang HJ 1995).

또한 기존의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불규칙적인 수업시간, 경제적 수준, 외모, 아침결식, 야식, 폭식, 외식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

관이 형성되고 있고 외부적으로 상업화된 많은 외식업체들이 대학생들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밀집되어 있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급식 대상자들의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음식의 고급화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다양화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DSRI 2002).

대학생의 식생활은 청년기에 이어 성인기의 식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생의 식생활은 성인기 이후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좋은 식습관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며(Choi EN 2010), 특히 우유 및 과일의 섭취가 가장 섭취가 부족한 제품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Kim KN, Lee KS 1996, Choi JK 등 2004).

최근에 기숙사 급식에서의 문제점으로 당면하게 된 것은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이 먹은 것에 대한 식비를 지불하기를 원하며(원지현 1999), 과거에는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식비를 일괄적으로 지불 하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메뉴의 외부 급식이 가능해 지면서 외부 급식소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먹지 않은 급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Choi EN 2010).

Green(1993) 역시 고객은 음식뿐만 아니라 편리함과 더불어 신속하고 영양 정보와 품질 등에 관한 정보 서비스들이 대학 급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기숙사 급식을 하는 학생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과 학업 등의 이유로 간편한 식품을 자주 선택하여 부적당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Kim HK, Kim JH 2005).

이러한 내. 외부적인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식만을 조리하여 제공한다는 마인드에서 탈피하여 음식의 품질, 서비스의 향상과 차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Choi CY 2010)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식문화로 인해 외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급식대상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영양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을 요구하게 되며(Yang IS 등

1995), 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더불어 학생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급식메뉴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Spears, M.C 1995).

2) 대학생들의 식습관

식습관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 온 생활양식으로, 신체적인 발육 뿐만 아니라 정서 및 심리적인 건강상태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IM MY 2010).

식생활은 원래 배고픔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행위로 작용을 했지만 최근에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맛과 모양으로 미적, 시각적 쾌감을 추구하게 되며(Moon SJ 등 1992, Choi EN 2010), 특히 대학생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므로,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불규칙적인 식사, 아르바이트, 이성교제, 잦은 음주, 흡연, 야식, 과식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잘못된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다(Kim HY 1984).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으며, 아침식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결식을 하게 되면, 영양섭취의 부족은 물론 학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Guthrie HA 외 1981).

그 중 대학생의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불규칙적인 식사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매우 바쁜 생활을 한다. 매 끼니의 식사는 자신의 건강을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을 할 때가 많다.

특히 아침식사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먹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많은 과제와 바쁜 하루생활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늦게 잠자리에 드는 대학생들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을 바에 차라리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hoi SY(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생들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비율이 절반도 안됐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시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왔으며, 다음으로 같이 식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이유로 나왔고 저녁식사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고 같이 식사를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식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1996)의 연구에서도 대학의 기숙사에 생활하는 기숙사생과 혼자 자취를 하는 자취생은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불규칙한 식습관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IM MY 2010).

최근 우리나라 국민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31.5%으로 대체로 낮았으며, 더욱이 10대에서 20대의 청소년들이 일반인 평균의 3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식사의 결식률은 10대 49.1%, 20대 51.9%, 30대 36.5%, 40대 26.1%, 50대 15.3%, 60대 10.5%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중학생이 38.1%, 고등학생이 47.6%, 대학생이 33.7%으로 보고된 적이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의 결식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 시간이 없고, 습관적으로, 입맛이 없어서, 여학생의 경우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ng LS, The breakfast actual condition of a Korean 1997).

특히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아침마다 밥을 차려서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귀찮은 것도 있어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

아침밥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두뇌회전도 둔해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업 효과나 이해력 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점심과 저녁 때 폭식

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므로 위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주게 되며, 대학생들은 집에서 보다 밖에서 대부분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상, 경제적인 수준과 또 주변 음식점의 여건상 종류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으며, 예전에는 밥, 국,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의 섭취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값이 저렴하고 간편하고 빠른 시간에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 등과 햄, 소시지, 고기 등의 육류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또한 바빠서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해결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식사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는 어려워지며,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설탕, 염분의 섭취는 증가하고 곡류나 야채, 과일의 섭취가 감소해서 비타민이나 섬유소와 같은 성분의 부족이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아져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고 골다공증, 불임, 비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 독특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O.T, M.T 등의 단합대회나 동아리의 모임 등에서 집단적으로 음주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개인에 주량에 맞게 적당히 술을 마시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20대는 아직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식사에 있어서도 영양소의 섭취 등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Choi EN 2010).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규칙적이지 못한 식생활과 영양섭취 부족, 아침결식, 편식, 흡연, 음주, 등의 의해서 위, 장관의 위해를 받게 되고 과도한 패스트푸드 섭취 등으로 인해서 비만 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Moses 외 1989).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식행동에 관한 조사에서 불규칙적인 생활, 야식, 패스트푸드 섭취, 운동 부족 등의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에 대해 지적하였다 (Kim 2004).

IM MY(2010)의 연구에서도 간식의 섭취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생들의 1일 1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학생이 전체의 응답자 중 45.7%로 나타났으며, 간식의 종류로는 “패스트푸드”가 26.6%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의 섭취는 심신의 건강 유지와 질병의 예방은 물론, 학업생활에 있어서와 정상적인 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아침식사의 결실률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식생활이 다양해진 시대에 맞게 패스트푸드와 같이 값이 저렴하고 간편하고 빠른 시간에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의 선정에 있어서도 영양적으로도 우수하고 음식의 품질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7, IM MY 2010).

3) 급식 서비스 품질의 개념

급식산업에서 서비스란 상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서비스이기도 한 “총체적인 상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IM MY 2010).

그러나 서비스 품질이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기보다는 고객 개개인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며,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으로 학자들 간에서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기고 서비스 품질은 하나의 지표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한번으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서비스는 고객에 의해 행해지는 판단으로 평가가 결과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 과정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 라는 점이 학자들 간의 공통된 인식들이다(Lee DY 등 2003).

서비스는 실제로 구매의 행동을 자극하여 재 구매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객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Yang IS 2003), 1980년대 이후 학자들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급식 서비스에서 급식의 품질 또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Tenner 외 1992), 서비스 품질은 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측정치가 정해지지 않고 고객 개개인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 지므로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지향적인 개념과 우수성과 우월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속성보다는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개념과 태도의 유사한 개념이며, 서비스 품질의 평가는 결과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구매하기 전에 미리 평가 할 수 있는 탐색적인 품질보다는 구매나 소비과정에서 평가하는 경험적인 품질 특성이 강하며, 서비스 품질은 기대와 성과의 비교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 인식하게 되며, 서비스 품질을 이 같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Jeon HR 2003).

최근 급식서비스의 품질관리의 한 방법으로 TQM(Total Quality Mangement)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급식의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TQM은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더불어 경쟁적인 우위와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기업의 운영과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Cornyn 등 1995).

Gronroos(1984)에 의하면, 서비스 품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고객간의 상호작용 후에 고객에게 남는 결과품질(기술적 품질)과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는가에 대한 과정품질(기능적 품질) 두 가지 영역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영역이 하나의 서비스로 형성하여 소비자에 대한 기대와 품질수준을 결정하게 된다(Yang IS 2001, Kwak TK 2001, Yi YJ 2002, Choi EN 2010).

서비스에 품질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의 관리를 통해서 고객 지향적이고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경쟁을 통해 재무적인 성과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Rapert and Wren 1998).

결국 모든 서비스에 관한 업종에 적용되는 서비스의 품질 구성 요인은 있을 수 없고 서비스에 관련된 업종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 구성 요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설사 같은 업종이라 한데도 업종에 속한 환경적,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과 구성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Choi SY 2010).

시대의 변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고 개성화되어지고 있지만(IM MY 2010), 일반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모두 제공하는 급식분야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생각에서 탈피해 급식 제공에 있어서 음식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음식, 메뉴, 서비스, 위생들의 전반적인 급식의 만족도 및 품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음식의 질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Han JS 2001, Choo YJ 2003).

4) 고객 만족의 중요성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서비스의 출발점은 고객이 기대하고 자라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다. 고객만족이 21세기 와서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경영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면서 국내의 급식산업에서도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만족을 넘어서 좀 더 차별화된 방법으로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 내야 하는 시대가 왔다(An KB 2008).

일반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구매 하는 데에 있어서 구매 의사 결정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 평가, 결정, 구매한 다음에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평가인 마지막 단계는 고객에게 만족과 불만족 상품의 재 구매를 반복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Park MH 등 2000).

무엇보다도 Oilver(1980)는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를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난 다음에 느낀 감정이 결과에 대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느낀 개념을 분석하여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Yi YJ 1999, Park MK 2007)고객의 기대 수준과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고객이 기대하는 기대도를 충족시켰으면 만족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고객의 기대도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면 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Zeithaml 외 1990, Yang IS 2001).

이처럼 오늘날의 고객만족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수익성과 긍정적인 구전과 적은 비용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어 왔다(Heskttt 등 1997).

급식의 만족도는 소비자의 인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음식의 양과 질, 음식 색의 균형과 음식 담는 그릇 등 제공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환경과

종업원의 친절도 까지 음식만족도에 포함된다(Symington, 1987).

급식소에서 고객이 인지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넓으며, 고객은 음식 뿐만 아니라 환경, 위생, 분위기, 종업원의 태도, 친절,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대를 하게 되며, 이와 같이 고객들의 물리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객들은 만족을 하지 못 할 것이다(Jang YJ 1995).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고객만족 경영은 고객만족이 경영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더불어 고객만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정기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불만족한 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해 나가는 경영으로 급식소를 이용한 고객들이 다시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Oh & Teong 1996).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을 위해서 먼저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시켜야 하며, 고객이 어떤 특성과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규명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고객에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욕구, 경험, 인식, 태도와 같은 내적인 요소와 사회적, 경제적 수준, 가정 문화 등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포함시켜야 한다(Martin 1988, Reid 1983).

고객만족을 위한 급식경영을 위해서는 먼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해야 하며, 급식에 관한 내,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Chong YK 1999, Yang IS 2000).

Green(1990)은 품질에 관한 품질의 서비스를 음식의 맛, 온도, 조리원의 친절함, 청결함 등을 규명함으로써 여기에 관한 기대도와 그 속성들의 수행도 파악, 분석을 하여 고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Symington(1987)의 연구에서도 깨끗한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음식의 맛과 음식의 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급식소에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고객의 기대와

급식소의 이용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서비스 간의 괴리(gap)를 통해서 고객이 느끼는 품질의 문제점과 서비스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Zeithaml 등 1990, IM MY 2010)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품질 특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급식소의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시켜 나가야 한다(Kim SH 1997, Yi YJ 1999, An KB 2008).

5) 대학 급식의 품질과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대학 급식산업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속성은 단지 음식의 맛이 좋고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만이 아니라, 음식 외에도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의 청결함과 음식을 제공하는 종업원의 서비스와 음식으로서의 품질인 양, 맛, 온도, 색, 질감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Martin, W.B.1986),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급식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품질의 평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Dube(1994)는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음식의 질이 고객 만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artin(1986)은 고품질 서비스가 급식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의 적시성과 서비스의 흐름들과 같은 서비스의 진행과정과 종업원의 태도, 재치와 함께 종업원의 친절한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의 종업원의 능력의 효과적인 결합에 의해서 향상 될 수 있다고 하였다.

An KB(2008)의 연구에서는 고객의 만족은 고객의 기대도에 대한 만족도가 일치할 때 생기는 감정이고 이와 반대로 고객의 불만족은 기대치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했을 때 불일치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으로 고객의 기대치 혹은 고객의 요구 수준을 잘 파악하여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Yang TS 등(2005)은 제주지역 대학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급식 업체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48개의 급식품질에 대한 문항 중에 7문항을 선택하여 중요도 요인이라 설정하고 5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만족도 요인으로 설정을 한 후에 중요도 요인을 독립변수로 만족도 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급식품질의 고객

만족도의 선행변수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며, 고객만족은 급식품질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Lee AJ, Lim YS(200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생 및 청결과 배식원의 식당 시설의 편리성, 음식의 질, 분위기, 이용의 편리성, 메뉴의 다양성 및 가격의 6영역 29문항으로 구성하여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여 급식 품질 속성과 운영형태에 따른 만족도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Choi SY(2010)의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학기숙사 급식의 고객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기숙사 급식의 품질특성별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모든 품질특성에 대한 만족도가 3점(보통) 이상으로 나와 비교적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볼 수 있었으나 분위기 만족도가 3점(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와 분위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숙사 급식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알맞게 음식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Choi EN(2010)의 충북지역 대학교 기숙사급식의 이용실태 및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학기숙사 급식의 이용할 때 불만 사항으로 ‘맛이 없음’ 과 ‘비위생적인 관리’ 의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음식의 맛 향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식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및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숙사생들의 주기적인 기숙사급식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음식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Cho JM(2009)의 익산지역 대학 기숙사생의 식습관 실태와 식사 선호도, 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일일 기숙사 식당 이용 횟수에 대한 결과 전체의 64.3%가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중 ‘아침결식’이 가장 높았으며, 결식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남.여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유, 과일의 섭취빈도에 있어서도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우유와 과일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급식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맛과 식단구성, 식당 분위기, 가격 면에서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음식의 질이 고객 만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도 종업원의 태도, 재치와 함께 종업원의 친절한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의 종업원의 능력의 효과적인 결합도 급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과 고객의 기호도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식대상자들의 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조사하여 급식대상자들의 급식만족과 기호도에 맞는 올바른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광주지역에 소재한 2군데의 일부 대학교 기숙사 급식소를 선정하여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남학생 210명, 여학생 180명, 전체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간 5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작성된 설문지에 기숙사에 거주하며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가 기입하는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배포된 설문지 390부 모두 회수 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371부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조사는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급식 서비스 만족도와 기호도 및 선호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선행연구(Shin SM 2009, Choi EN 2010, Choi SY 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급식 대상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기기입식 기록과 기호도 조사에 있어서는 각 항목별 주식, 부식, 국, 찌개, 탕, 부찬류, 주찬류, 김치류, 후식류로 나뉜 각 메뉴별 항목에 체크하게 하였으며,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음식 만족도, 위생 만족도, 메뉴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응답자가 각 항목에 표시하게 하였고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factor about questionnaire configuration contents

구분	총 문항수	내용
일반사항	8	성별, 연령, 기숙사 거주기간, 학년, 한달용돈 출신지역
식습관	21	식사규칙성(5) 결식(2) 편식(2) 외식(2) 건강관련행동(4) 식생활관련(6)
기호도조사	6	분류 I (17) 분류 II (16) 분류 III (13) 분류 IV (17) 분류 V (6) 분류 VI (11)
만족도조사	4	음식만족도(6) 위생만족도(6) 메뉴만족도(6) 서비스만족도(6)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달용돈, 출신지역 등을 조사하였다.

2)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조사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조사 사항으로 기숙사 급식의 하루 이용 횟수와 조사 대상자의 편식여부, 편식하는 식품의 종류, 결식여부, 술, 외식횟수, 커피 섭취 횟수, 유제품 섭취, 간식 섭취에 관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3) 조사 대상자의 선호도 조사

선호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조사 대상자가 선호하는 음식과 조리방법, 짠맛, 단맛, 신맛의 선호도와 잔반으로 남기는 음식의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4) 조사 대상자의 급식 만족도 조사

기숙사 급식에서 제공되는 전반적인 급식 만족도에 관한 조사 사항과 음식만족도(6문항), 위생만족도(6문항), 메뉴만족도(6문항), 서비스 만족도(6문항)로 나뉘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에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으로 5단계로 나뉘서 작성된 설문지에 대상자들이 만족도를 직접 체크하게 하였다.

3. 조사 자료의 통계처리 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 내용에 따라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7.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변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선택형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급식에 대한 성별, 학년에 따라 만족도와 메뉴 기호도에 대해 차이 비교를 위해 응답자의 평균값을 구하여 변인별로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Likert-type형 5단계 척도문항에 대해서는 1점에서 부터 5점까지 점수화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는 유의수준으로 $\alpha=0.05$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를 위해서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성별과, 연령대,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달용돈, 출신지역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따르면, 기숙사에 거주하여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 200명(53.9%), 여학생 171명(46.1%)으로 기숙사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년으로는 1학년이 136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이 140명(37.7%)으로 많았고 3학년 이상이 95명(25.6%)순이었다.

Choi SY(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남학생이 65.45%, 여학생이 34.55%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에서도 1학년이 45.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2학년이 28.57%, 3학년이 18.60% 4학년이 7.31%의 순으로 나타나 기숙사의 거주하는 학생이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숙사의 거주기간으로는 3-4학기가 140명(37.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2학기가 136명(36.7%), 5학기 이상이 95명(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IM MY(2010)연구에서도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거주기간이 2-3학기가 5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2학기 이상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전체의 응답자에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한달 용돈으로는 15-20만원이 112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10-15만원이 109명(29.4%)이었고 10만원 미만인 71명(19.1%), 20만원 이상이 79명(21.3%)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Kim 2005)에서는 20-3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는 조금 보였으나 응답자의 대부분의 평균용돈이 10-20만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호남지역이 각각 118명(3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이 92명(24.8%), 충청지역이 32명(8.6%), 기타 11명(3.0%)순으로 나타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경상과 호남지역의 출신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The factor about general information of investigation subject

구분	범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	200	53.9
	여	171	46.1
학년	1학년	136	36.7
	2학년	140	37.7
	3학년이상	95	25.6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136	36.7
	3-4학기	140	37.7
	5학기이상	95	25.6
한달용돈	10만원미만	71	19.1
	10-15만원	109	29.4
	15-20만원	112	30.2
	20만원이상	79	21.3
출신지역	수도권	92	24.8
	경상	118	31.8
	충청	32	8.6
	호남	118	31.8
	기타	11	3.0

2. 식습관 실태 조사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식습관과 선호도를 알아보기 기숙사 급식의 하루 이용 횟수와 편식여부, 편식하는 식품의 종류, 결식여부, 술, 외식횟수, 커피섭취 횟수, 유제품 섭취, 간식섭취에 관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조사 대상자가 선호하는 음식과 조리방법, 짠맛, 단맛, 신맛의 선호도와 잔반으로 남기는 음식의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1) 식습관 조사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먼저 하루에 3끼 모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가 Table 3에 제시하였다.

‘하루 3끼 모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가 남학생 101명(51%), 여학생 45명(26.2%)으로 전체 응답자 373명 중 146명(39.5%)이었으며, ‘점심만 규칙적으로 한다’가 남학생 36명(18.3%), 여학생 30명(17.5%)으로 전체 응답자 중 66명(17.9%)이었으며, ‘불규칙적이다’가 남학생 61명(30.8%), 여학생 97명(56.4%)으로 전체 응답자 중 158명(42.7%)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하루 3끼 모두 규칙적으로 한다’가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불규칙적이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남학생(51%)이 여학생(26.2%)보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2.3학년 보다 기숙사 거주기간에서는 1-2학기인 학생이 3학기 이상인 학생들 보다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한달 용돈 씬셈이에 따라보면 10만원 미만인 학생들이 10만원 이상인 학생들보다 많았다.

출신지역별에 따라서는 수도권과 충청권 학생들이 경상권이나 호남권 학생들보다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Table 3. The factor about whether or not regular eating

			그렇다	점심만 규칙적	불규칙적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101	36	60	197	$\chi^2=28.639$ df=2 p<0.001
		%	51.3%	18.3%	30.5%	100.0%	
	여	빈도	45	30	96	171	
		%	26.3%	17.5%	56.1%	100.0%	
학년	1학년	빈도	77	33	56	166	$\chi^2=9.939$ df=4 p=0.041
		%	46.4%	19.9%	33.7%	100.0%	
	2학년	빈도	42	22	66	130	
		%	32.3%	16.9%	50.8%	100.0%	
	3학년이상	빈도	27	11	34	72	
		%	37.5%	15.3%	47.2%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65	29	42	136	$\chi^2=16.577$ df=4 p=0.002
		%	47.8%	21.3%	30.9%	100.0%	
	3~4학기	빈도	51	27	61	139	
		%	36.7%	19.4%	43.9%	100.0%	
	5학기이상	빈도	30	10	53	93	
		%	32.3%	10.8%	57.0%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39	15	16	70	$\chi^2=21.312$ df=6 p=0.002
		%	55.7%	21.4%	22.9%	100.0%	
	10~15만원	빈도	42	23	43	108	
		%	38.9%	21.3%	39.8%	100.0%	
	15~20만원	빈도	38	12	61	111	
		%	34.2%	10.8%	55.0%	100.0%	
	20만원이상	빈도	27	16	36	79	
		%	34.2%	20.3%	45.6%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45	23	24	92	$\chi^2=37.243$ df=8 p<0.001
		%	48.9%	25.0%	26.1%	100.0%	
	경상	빈도	31	13	73	117	
		%	26.5%	11.1%	62.4%	100.0%	
	충청	빈도	19	7	6	32	
		%	59.4%	21.9%	18.8%	100.0%	
	호남	빈도	47	21	48	116	
		%	40.5%	18.1%	41.4%	100.0%	
	기타	빈도	4	2	5	11	
		%	36.4%	18.2%	45.5%	100.0%	
전체	빈도	146	66	156	368		
	%	39.7%	17.9%	42.4%	100.0%		

2) 기숙사 급식 이용 빈도에 관한 사항

평소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횟수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하루 3번 이용한다’가 남학생 100명(51.3%), 여학생 54명(31.6%)으로 전체 응답자 373명 가운데 154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2번 이용한다’가 남학생 78명(40.0%), 여학생 54명(31.6%), 전체 132명(36.1%)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번’이 남학생 14명(7.1%), 여학생이 63명(36.8%)으로 전체 77명(21.0%)으로 나타났으며, ‘가지 않는다’는 남학생만 3명(1.5%)으로 나타나 남학생은 ‘하루 3번 이용한다’가 51.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하루 2번’이 40.0%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은 ‘하루 1번’이 36.8%으로 가장 많고 다음 ‘하루 2번’과 ‘하루 3번’이 31.6%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은 비교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여 학생을 모두 비교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 JM(2009)의 연구에서 1일 기숙사 급식 이용 횟수에 대한 결과에 ‘하루 1번 식사를 한다’가 남학생은 16.8%인데 비해 여학생은 30.5%으로 여학생이 기숙사 급식 이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한끼 식사도 하지 않는다’가 남학생이 1.5%, 여학생이 0.8%으로 나타나 기숙사 급식을 하루 한끼의 식사도 하지 않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숙사 급식 이용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낮고 기숙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기숙사 급식 이용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숙사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다양한 메뉴제공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는 장점이 있지만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음식 메뉴에 대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기숙사 급식의 이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급식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급식 대상자들의 메뉴에 대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호도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영양적이고 기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권이 타 지역 학생들보다 이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4. The factor frequency of using dormitory school lunch

			하루3번	하루2번	하루1번	가지 않는다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100	78	14	3	195	$\chi^2=50.931$ df=3 p<0.001
		%	51.3%	40.0%	7.2%	1.5%	100.0%	
	여	빈도	54	54	63	0	171	
		%	31.6%	31.6%	36.8%	0.0%	100.0%	
학년	1학년	빈도	76	73	13	3	165	$\chi^2=41.362$ df=6 p<0.001
		%	46.1%	44.2%	7.9%	1.8%	100.0%	
	2학년	빈도	46	35	48	0	129	
		%	35.7%	27.1%	37.2%	0.0%	100.0%	
	3학년이상	빈도	32	24	16	0	72	
		%	44.4%	33.3%	22.2%	0.0%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66	56	12	1	135	$\chi^2=25.966$ df=6 p<0.001
		%	48.9%	41.5%	8.9%	0.7%	100.0%	
	3-4학기	빈도	58	39	41	0	138	
		%	42.0%	28.3%	29.7%	0.0%	100.0%	
	5학기이상	빈도	30	37	24	2	93	
		%	32.3%	39.8%	25.8%	2.2%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44	20	6	0	70	$\chi^2=34.002$ df=9 p<0.001
		%	62.9%	28.6%	8.6%	0.0%	100.0%	
	10-15만원	빈도	43	34	32	0	109	
		%	39.4%	31.2%	29.4%	0.0%	100.0%	
	15-20만원	빈도	41	36	29	2	108	
		%	38.0%	33.3%	26.9%	1.9%	100.0%	
	20만원이상	빈도	26	42	10	1	79	
		%	32.9%	53.2%	12.7%	1.3%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52	31	8	0	91	$\chi^2=93.202$ df=12 p<0.001
		%	57.1%	34.1%	8.8%	0.0%	100.0%	
	경상	빈도	37	24	55	0	116	
		%	31.9%	20.7%	47.4%	0.0%	100.0%	
	충청	빈도	20	10	2	0	32	
		%	62.5%	31.3%	6.3%	0.0%	100.0%	
	호남	빈도	40	62	11	3	116	
		%	34.5%	53.4%	9.5%	2.6%	100.0%	
	기타	빈도	5	5	1	0	11	
		%	45.5%	45.5%	9.1%	0.0%	100.0%	
전체		빈도	154	132	77	3	366	
		%	42.1%	36.1%	21.0%	0.8%	100.0%	

3) 기숙사 급식을 하루 2회 이용하는 이유 관한 사항

기숙사 급식을 하루에 2회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5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시간이 없어서’가 남학생 41명(53.9%), 여학생 30명(55.6%), 전체 응답자 중 7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학생은 ‘맛이 없어서’가 24명(31.6%),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가 6명(7.1%), ‘기타’가 5명(6.6%)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맛이 없어서’가 13명(24.1%),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와 ‘기타’ 의견이 11명(8.5%)의 순으로 나타나 남.여 모두 기숙사 급식을 하루 2회 이용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와 ‘맛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

기숙사 급식을 하루 2회 이용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와 ‘맛이 없어서’가 많은 이유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급식 대상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여 음식을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메뉴 개발과 맛에 있어서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The reason which uses a dormitory school lunch at two times in a day

			맞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 식사 를 하므로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24	41	6	5	76	$\chi^2=1.475$ df=3 p=0.688
		%	31.6%	53.9%	7.9%	6.6%	100.0%	
	여	빈도	13	30	5	6	54	
		%	24.1%	55.6%	9.3%	11.1%	100.0%	
학년	1학년	빈도	22	39	5	5	71	$\chi^2=6.252$ df=6 p=0.396
		%	31.0%	54.9%	7.0%	7.0%	100.0%	
	2학년	빈도	7	21	2	5	35	
		%	20.0%	60.0%	5.7%	14.3%	100.0%	
	3학년이상	빈도	8	11	4	1	24	
		%	33.3%	45.8%	16.7%	4.2%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15	30	8	3	56	$\chi^2=7.936$ df=6 p=0.243
		%	26.8%	53.6%	14.3%	5.4%	100.0%	
	3-4학기	빈도	10	22	1	6	39	
		%	25.6%	56.4%	2.6%	15.4%	100.0%	
	5학기이상	빈도	12	19	2	2	35	
		%	34.3%	54.3%	5.7%	5.7%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8	9	2	1	20	$\chi^2=12.964$ df=9 p=0.164
		%	40.0%	45.0%	10.0%	5.0%	100.0%	
	10-15만원	빈도	7	22	2	2	33	
		%	21.2%	66.7%	6.1%	6.1%	100.0%	
	15-20만원	빈도	6	19	6	5	36	
		%	16.7%	52.8%	16.7%	13.9%	100.0%	
20만원이상	빈도	16	21	1	3	41		
	%	39.0%	51.2%	2.4%	7.3%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8	17	3	3	31	$\chi^2=11.995$ df=12 p=0.446
		%	25.8%	54.8%	9.7%	9.7%	100.0%	
	경상	빈도	6	15	3	0	24	
		%	25.0%	62.5%	12.5%	0.0%	100.0%	
	충청	빈도	1	6	1	1	9	
		%	11.1%	66.7%	11.1%	11.1%	100.0%	
호남	빈도	18	32	4	7	61		
	%	29.5%	52.5%	6.6%	11.5%	100.0%		
기타	빈도	4	1	0	0	5		
	%	80.0%	20.0%	0.0%	0.0%	100.0%		
전체	빈도	37	71	11	11	130		
	%	28.5%	54.6%	8.5%	8.5%	100.0%		

4) 기숙사 급식을 하루에 1회 이용하는 이유

기숙사 급식을 하루에 1회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6에 나와 있다.

남학생 4명(30.8%), 여학생 39명(61.9%)으로 전체 응답자의 43명(56.6%)이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므로’ 라고 응답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32.9%, ‘맛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10.5%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가 46.2%,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므로’ 4명(30.8%), ‘맛이 없어서’ 3명(23.1%)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므로’ 39명(61.9%), ‘시간이 없어서’가 19명(30.2%), ‘맛이 없어서’ 5명(7.9%) 순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변인에서 p 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씬셈이가 10만원인 응답자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므로’가 각 50%으로 나타났고 10-20만원인 응답자의 경우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므로’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맛이 없어서’와 ‘시간이 없어서’의 빈도가 많았다.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대상자 대부분이 20대로 외식산업을 접할 기회가 많고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기 보다는 외부에 나가 식사를 하는 기회가 많아 기숙사 급식을 이용 횟수가 적어지고 있으므로 급식 대상자들의 요구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Table 6. The reason which uses a dormitory school lunch at one time in a day

			맛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므로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3	6	4	0	13	$\chi^2=5.031$ df=2 p=0.081
		%	23.1%	46.2%	30.8%	0.00%	100.0%	
	여	빈도	5	19	39	0	63	
		%	7.9%	30.2%	61.9%	0.00%	100.0%	
학년	1학년	빈도	3	6	4	0	13	$\chi^2=6.831$ df=4 p=0.145
		%	23.1%	46.2%	30.8%	0.00%	100.0%	
	2학년	빈도	4	12	31	0	47	
		%	8.5%	25.5%	66.0%	0.00%	100.0%	
	3학년이상	빈도	1	7	8	0	16	
		%	6.3%	43.8%	50.0%	0.00%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3	6	3	0	12	$\chi^2=7.255$ df=4 p=0.123
		%	25.0%	50.0%	25.0%	0.00%	100.0%	
	3-4학기	빈도	4	11	25	0	40	
		%	10.0%	27.5%	62.5%	0.00%	100.0%	
	5학기이상	빈도	1	8	15	0	24	
		%	4.2%	33.3%	62.5%	0.00%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0	3	3	0	6	$\chi^2=13.616$ df=6 p=0.034
		%	0.0%	50.0%	50.0%	0.00%	100.0%	
	10-15만원	빈도	2	9	21	0	32	
		%	6.3%	28.1%	65.6%	0.00%	100.0%	
	15-20만원	빈도	2	9	17	0	28	
		%	7.1%	32.1%	60.7%	0.00%	100.0%	
	20만원이상	빈도	4	4	2	0	10	
		%	40.0%	40.0%	20.0%	0.00%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2	3	3	0	8	$\chi^2=31.288$ df=8 p<0.001
		%	25.0%	37.5%	37.5%	0.00%	100.0%	
	경상	빈도	2	14	39	0	55	
		%	3.6%	25.5%	70.9%	0.00%	100.0%	
	충청	빈도	1	0	0	0	1	
		%	100.0%	0.0%	0.0%	0.00%	100.0%	
	호남	빈도	3	8	0	0	11	
		%	27.3%	72.7%	0.0%	0.00%	100.0%	
	기타	빈도	0	0	1	0	1	
		%	0.0%	0.0%	100.0%	0.00%	100.0%	
전체	빈도	8	25	43	0	76		
	%	10.5%	32.9%	56.6%	0.00%	100.0%		

5)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이유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 사항은 Table 7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남학생 72명(37.9%), 여학생 53명(31.7%)으로 전체 응답자 중 125명(35.0%)이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 라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123명(34.5%)이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격이 저렴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67명(18.8%),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는 식사’라서가 응답자의 36명(10.1%)으로 나타났고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자는 6명(1.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 72명(37.9%), ‘가격이 저렴해서’ 49명(25.8%),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어서’ 39명(20.5%),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라서’ 25명(13.2%), ‘맛이 좋아서’ 5명(2.6%)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없어서’ 84명(50.3%),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 53명(31.7%), ‘가격이 저렴해서’ 18명(10.8%),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라서’ 11명(6.6%), ‘맛이 좋아서’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라고 37.9%가 응답했고 여학생은 ‘도시락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라고 50.3%가 응답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 2.3학년은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어서’의 빈도가 높았고 기숙사 거주기간이 길수록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어서’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지역별에 따라서는 경상권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은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의 빈도가 많았다.

Table 7. The factor about reason using a school lunch fact

			외부로 나갈수 없어서	도시락 을 준비 할 수 없어서	영양적 으로 균 형이 맞 는 식사 라서	가격이 저렴해 서	맛이 좋아서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72	39	25	49	5	190	$\chi^2=40.49$ 2 df=4 p<0.001	
		%	37.9%	20.5%	13.2%	25.8%	2.6%	100.0%		
	여	빈도	53	84	11	18	1	167		
		%	31.7%	50.3%	6.6%	10.8%	0.6%	100.0%		
학년	1학년	빈도	65	34	16	39	5	159		$\chi^2=29.31$ 4 df=8 p<0.001
		%	40.9%	21.4%	10.1%	24.5%	3.1%	100.0%		
	2학년	빈도	34	62	12	18	0	126		
		%	27.0%	49.2%	9.5%	14.3%	0.0%	100.0%		
	3학년이상	빈도	26	27	8	10	1	72		
		%	36.1%	37.5%	11.1%	13.9%	1.4%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53	30	13	30	4	130	$\chi^2=18.60$ 5 df=0 p=0.017	
		%	40.8%	23.1%	10.0%	23.1%	3.1%	100.0%		
	3-4학기	빈도	46	56	16	18	0	136		
		%	33.8%	41.2%	11.8%	13.2%	0.0%	100.0%		
	5학기이상	빈도	26	37	7	19	2	91		
		%	28.6%	40.7%	7.7%	20.9%	2.2%	100.0%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빈도	32	14	5	17	0	68	$\chi^2=24.87$ 8 df=12 p=0.015	
		%	47.1%	20.6%	7.4%	25.0%	0.0%	100.0%		
	10-15만원	빈도	25	46	13	16	3	103		
		%	24.3%	44.7%	12.6%	15.5%	2.9%	100.0%		
	15-20만원	빈도	33	44	10	20	2	109		
		%	30.3%	40.4%	9.2%	18.3%	1.8%	100.0%		
	20만원 이상	빈도	35	19	8	14	1	77		
		%	45.5%	24.7%	10.4%	18.2%	1.3%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41	22	9	16	2	90	$\chi^2=86.05$ 5 df=16 p<0.001	
		%	45.6%	24.4%	10.0%	17.8%	2.2%	100.0%		
	경상	빈도	20	77	8	10	1	116		
		%	17.2%	66.4%	6.9%	8.6%	0.9%	100.0%		
	충청	빈도	12	4	6	8	1	31		
		%	38.7%	12.9%	19.4%	25.8%	3.2%	100.0%		
	호남	빈도	47	19	11	30	2	109		
		%	43.1%	17.4%	10.1%	27.5%	1.8%	100.0%		
	기타	빈도	5	1	2	3	0	11		
		%	45.5%	9.1%	18.2%	27.3%	0.0%	100.0%		
전체	빈도	125	123	36	67	6	357			
	%	35.0%	34.5%	10.1%	18.8%	1.7%	100.0%			

6) 결식하는 끼니에 관한 사항

급식 대상자들의 결식하는 끼니에 관한 결과 사항이 Table8 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결식하는 끼니에 대해서는 ‘아침’ 이 남학생 79명(40.5%), 여학생 49명(28.7%)으로 전체 응답자 중 128명(35.0%)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저녁’ 이 전체 응답자의 107명(29.2%), ‘점심’ 이 전체 응답자의 68명(18.6%)으로 나타났고 ‘없다’의 응답자는 37명(10.1%), ‘모두 해당된다’ 라는 응답자는 26명(7.1%)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아침’ 79명(40.5%), ‘점심’ 43명(22.1%), ‘저녁’ 30명(15.4%), ‘없음’ 27명(13.8%), ‘모두 해당’ 16명(8.2%)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저녁’ 77명(45.0%), ‘아침’ 49명(28.7%), ‘점심’ 25명(14.6%), ‘모두 해당과 없음’ 10명(5.8%)순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는 Cho JM(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결식하는 끼니에 대한 사항에서 남학생 78.5%, 여학생 60.7%으로 ‘아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침’을 가장 많이 결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40.5%가 ‘아침’이라고 응답했고 여학생의 경우 45.0%가 ‘저녁’으로 응답해 남.여 간의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아침’, 2,3학년은 ‘저녁’이 빈도가 높았고 기숙사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1-2학기는 ‘아침’, 3학기 이상은 ‘저녁’의 빈도가 많았다.

한 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보면 10만원 미만과 20만원 이상은 ‘아침’이라고 응답했고 10~20만원 사이에서는 ‘저녁’의 빈도가 높았다.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권은 ‘저녁’이 타지역은 ‘아침’의 빈도가 많았다.

Lee HS 등(1998)의 연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영양부족과 함께 학업에 있어서 집중력 감퇴, 간식 섭취 증가와 점심에 폭식으로 인해서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아침식사를 반드시 섭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영양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Table 8. About whether to going without a meal fact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해당	없음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79	43	30	16	27	195	$\chi^2=40.235$ df=4 p<0.001
		%	40.5%	22.1%	15.4%	8.2%	13.8%	100.0%	
	여	빈도	49	25	77	10	10	171	
		%	28.7%	14.6%	45.0%	5.8%	5.8%	100.0%	
학년	1학년	빈도	76	29	25	12	22	164	$\chi^2=36.836$ df=8 p<0.001
		%	46.3%	17.7%	15.2%	7.3%	13.4%	100.0%	
	2학년	빈도	34	25	56	7	8	130	
		%	26.2%	19.2%	43.1%	5.4%	6.2%	100.0%	
	3학년이상	빈도	18	14	26	7	7	72	
		%	25.0%	19.4%	36.1%	9.7%	9.7%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64	25	19	11	14	133	$\chi^2=40.533$ df=8 p<0.001
		%	48.1%	18.8%	14.3%	8.3%	10.5%	100.0%	
	3-4학기	빈도	36	34	54	7	8	139	
		%	25.9%	24.5%	38.8%	5.0%	5.8%	100.0%	
	5학기이상	빈도	28	9	34	8	15	94	
		%	29.8%	9.6%	36.2%	8.5%	16.0%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31	13	8	4	11	67	$\chi^2=29.633$ df=12 p=0.003
		%	46.3%	19.4%	11.9%	6.0%	16.4%	100.0%	
	10-15만원	빈도	33	24	35	6	11	109	
		%	30.3%	22.0%	32.1%	5.5%	10.1%	100.0%	
	15-20만원	빈도	27	19	45	9	11	111	
		%	24.3%	17.1%	40.5%	8.1%	9.9%	100.0%	
	20만원이상	빈도	37	12	19	7	4	79	
		%	46.8%	15.2%	24.1%	8.9%	5.1%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42	22	14	5	7	90	$\chi^2=88.876$ df=16 p<0.001
		%	46.7%	24.4%	15.6%	5.6%	7.8%	100.0%	
	경상	빈도	16	19	67	5	10	117	
		%	13.7%	16.2%	57.3%	4.3%	8.5%	100.0%	
	충청	빈도	10	8	3	4	7	32	
		%	31.3%	25.0%	9.4%	12.5%	21.9%	100.0%	
	호남	빈도	53	16	22	12	13	116	
		%	45.7%	13.8%	19.0%	10.3%	11.2%	100.0%	
	기타	빈도	7	3	1	0	0	11	
		%	63.6%	27.3%	9.1%	0.0%	0.0%	100.0%	
전체	빈도	128	68	107	26	37	366		
	%	35.0%	18.6%	29.2%	7.1%	10.1%	100.0%		

7)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관한 사항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Table 9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 97명(53.3%), 여학생 49명(29.5%)으로 전체 응답자의 146명(42.0%)이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136명(39.1%)이 ‘식욕이 없어서’ 라고 응답했다.

‘습관적으로’ 라고 응답한 학생은 29명(8.3%), 기타는 37명(10.6%)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시간이 부족해서’가 97명(53.3%), 여학생의 경우 ‘식욕이 없어서’가 87명(52.4%)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시간이 부족해서’ 2학년 이상은 ‘식욕이 없어서’의 빈도가 많았다.

이 결과는 Lee HS 등 (1998), Park SW (200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식욕 부족’, ‘습관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숙사 거주기간으로는 1-2학기과 5학기 이상은 ‘시간이 부족해서’, 3학기-4학기는 ‘식욕이 없어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 보면 1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인 경우 ‘시간이 부족해서’가 10-20만원은 ‘식욕이 없어서’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경상권의 경우 ‘식욕이 없어서’의 빈도가 많았고 그 외 지역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많았다.

급식 대상자들의 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와 ‘식욕 부족’과 ‘습관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균형 잡힌 영양의 섭

취는 심신의 건강과 질병의 예방과 학업 생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영양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9. The factor reason skipping a meal

			시간이 부족해서	식욕이 없어서	습관적 으로	기타	전체	카이 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97	49	14	22	182	$\chi^2=27.079$ df=3 p<0.001	
		%	53.3%	26.9%	7.7%	12.1%	100.0%		
	여	빈도	49	87	15	15	166		
		%	29.5%	52.4%	9.0%	9.0%	100.0%		
학년	1학년	빈도	85	36	9	22	152	$\chi^2=38.959$ df=6 p<0.001	
		%	55.9%	23.7%	5.9%	14.5%	100.0%		
	2학년	빈도	34	67	12	13	126		
		%	27.0%	53.2%	9.5%	10.3%	100.0%		
	3학년이상	빈도	27	33	8	2	70		
		%	38.6%	47.1%	11.4%	2.9%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68	34	10	12	124	$\chi^2=23.786$ df=6 p<0.001	
		%	54.8%	27.4%	8.1%	9.7%	100.0%		
	3-4학기	빈도	38	70	14	13	135		
		%	28.1%	51.9%	10.4%	9.6%	100.0%		
	5학기이상	빈도	40	32	5	12	89		
		%	44.9%	36.0%	5.6%	13.5%	100.0%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빈도	35	18	3	5	61	$\chi^2=29.813$ df=9 p<0.001	
		%	57.4%	29.5%	4.9%	8.2%	100.0%		
	10-15만원	빈도	39	48	9	10	106		
		%	36.8%	45.3%	8.5%	9.4%	100.0%		
	15-20만원	빈도	30	55	8	11	104		
		%	28.8%	52.9%	7.7%	10.6%	100.0%		
	20만원 이상	빈도	42	15	9	11	77		
		%	54.5%	19.5%	11.7%	14.3%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48	27	5	6	86	$\chi^2=82.985$ df=12 p<0.001	
		%	55.8%	31.4%	5.8%	7.0%	100.0%		
	경상	빈도	26	78	7	4	115		
		%	22.6%	67.8%	6.1%	3.5%	100.0%		
	충청	빈도	14	8	5	4	31		
		%	45.2%	25.8%	16.1%	12.9%	100.0%		
	호남	빈도	52	21	9	23	105		
		%	49.5%	20.0%	8.6%	21.9%	100.0%		
	기타	빈도	6	2	3	0	11		
		%	54.5%	18.2%	27.3%	0.0%	100.0%		
	전체		빈도	146	136	29	37		348
			%	42.0%	39.1%	8.3%	10.6%		100.0%

8) 편식 여부에 관한 사항

급식 대상자들의 편식 여부에 관한 결과 사항이 Table 10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편식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안한다’는 남학생의 경우 74명(37.9%), 여학생의 경우 95명(56.2)으로 전체 응답자의 169명(46.4%)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에 따라 조금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104명(53.3%), 여학생의 경우 52명(30.8%)으로 전체 응답자의 156명(42.9%)으로 나타났고 ‘많이 한다’는 남학생의 경우 17명(8.7%), 여학생의 경우 22명(13.0%)으로 전체 응답자의 39명(10.7%)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식에 따라 편식을 조금 한다’라는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 한 달 용돈 씬씀이가 10만원 미만인 학생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안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여학생과 2학년 이상,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 한 달 용돈 씬씀이가 20만원 이상인 학생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Table 10. The fact or of whether or not picky

			음식에 따라 조금	안한다	많이 한다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104	74	17	195	$\chi^2=18.823$ df=2 p<0.001
		%	53.3%	37.9%	8.7%	100.0%	
	여	빈도	52	95	22	169	
		%	30.8%	56.2%	13.0%	100.0%	
학년	1학년	빈도	91	57	15	163	$\chi^2=22.038$ df=4 p<0.001
		%	55.8%	35.0%	9.2%	100.0%	
	2학년	빈도	38	76	16	130	
		%	29.2%	58.5%	12.3%	100.0%	
	3학년이상	빈도	27	36	8	71	
		%	38.0%	50.7%	11.3%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80	42	11	133	$\chi^2=26.627$ df=4 p<0.001
		%	60.2%	31.6%	8.3%	100.0%	
	3~4학기	빈도	45	75	19	139	
		%	32.4%	54.0%	13.7%	100.0%	
	5학기이상	빈도	31	52	9	92	
		%	33.7%	56.5%	9.8%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47	18	5	70	$\chi^2=25.518$ df=6 p<0.001
		%	67.1%	25.7%	7.1%	100.0%	
	10~15만원	빈도	36	59	12	107	
		%	33.6%	55.1%	11.2%	100.0%	
	15~20만원	빈도	43	57	9	109	
		%	39.4%	52.3%	8.3%	100.0%	
	20만원이상	빈도	30	35	13	78	
		%	38.5%	44.9%	16.7%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44	39	8	91	$\chi^2=34.626$ df=8 p<0.001
		%	48.4%	42.9%	8.8%	100.0%	
	경상	빈도	27	76	14	117	
		%	23.1%	65.0%	12.0%	100.0%	
	충청	빈도	12	14	5	31	
		%	38.7%	45.2%	16.1%	100.0%	
	호남	빈도	66	37	11	114	
		%	57.9%	32.5%	9.6%	100.0%	
	기타	빈도	7	3	1	11	
		%	63.6%	27.3%	9.1%	100.0%	
전체		빈도	156	169	39	364	
		%	42.9%	46.4%	10.7%	100.0%	

9) 편식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

급식 대상자들의 편식하는 식품의 종류에 대한 결과 사항을 살펴보면 Table 11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65명(36.5%), 여학생의 경우 50명(31.8%)으로 전체 응답자의 34.3%로 '생선'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채소'가 남학생의 경우 61명(34.3%), 여학생의 경우 30명(19.1%) 전체 응답자의 91명(27.22%), '고기'가 남학생의 경우 26명(14.6%), 여학생의 경우 64명(40.8%)으로 응답자의 90명(26.9%)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일'과 '유제품'은 각각 21명(6.3%)과 18명(5.4%)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생선'(36.5%)과 '채소'(34.3%)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고기'(40.8%)와 '생선'(31.8%)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은 '채소'가 2학년 이상은 '고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숙사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1-2학기는 '채소'와 '생선'이 3학기 이상에서는 '고기'와 '생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기타지역에서는 '채소'가 경상권과 충청권에서는 '생선'이 경상에서는 '고기'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편식을 하는 식품으로 '채소류'와 '생선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편식하는 식품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리방법을 조사하고 개발하여 섭취률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1. The fact or of kinds of unbalanced foods

			채소	생선	고기	과일	유제품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61	65	26	11	15	178	$\chi^2=35.432$ df=4 p<0.001
		%	34.3%	36.5%	14.6%	6.2%	8.4%	100.0%	
	여	빈도	30	50	64	10	3	157	
		%	19.1%	31.8%	40.8%	6.4%	1.9%	100.0%	
학년	1학년	빈도	58	58	14	10	8	148	$\chi^2=49.993$ df=8 p<0.001
		%	39.2%	39.2%	9.5%	6.8%	5.4%	100.0%	
	2학년	빈도	19	38	54	5	7	123	
		%	15.4%	30.9%	43.9%	4.1%	5.7%	100.0%	
	3학년이상	빈도	14	19	22	6	3	64	
		%	21.9%	29.7%	34.4%	9.4%	4.7%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48	44	13	8	6	119	$\chi^2=30.538$ df=8 p<0.001
		%	40.3%	37.0%	10.9%	6.7%	5.0%	100.0%	
	3-4학기	빈도	24	43	49	8	8	132	
		%	18.2%	32.6%	37.1%	6.1%	6.1%	100.0%	
	5학기이상	빈도	19	28	28	5	4	84	
		%	22.6%	33.3%	33.3%	6.0%	4.8%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28	24	7	3	2	64	$\chi^2=34.272$ df=12 p=0.001
		%	43.8%	37.5%	10.9%	4.7%	3.1%	100.0%	
	10-15만원	빈도	17	33	40	5	7	102	
		%	16.7%	32.4%	39.2%	4.9%	6.9%	100.0%	
	15-20만원	빈도	22	34	34	8	6	104	
		%	21.2%	32.7%	32.7%	7.7%	5.8%	100.0%	
	20만원이상	빈도	24	24	9	5	3	65	
		%	36.9%	36.9%	13.8%	7.7%	4.6%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30	21	17	11	4	83	$\chi^2=98.829$ df=16 p<0.001
		%	36.1%	25.3%	20.5%	13.3%	4.8%	100.0%	
	경상	빈도	17	27	60	4	7	115	
		%	14.8%	23.5%	52.2%	3.5%	6.1%	100.0%	
	충청	빈도	6	10	4	5	2	27	
		%	22.2%	37.0%	14.8%	18.5%	7.4%	100.0%	
	호남	빈도	31	54	9	1	5	100	
		%	31.0%	54.0%	9.0%	1.0%	5.0%	100.0%	
	기타	빈도	7	3	0	0	0	10	
		%	70.0%	30.0%	0.0%	0.0%	0.0%	100.0%	
전체		빈도	91	115	90	21	18	335	
		%	27.2%	34.3%	26.9%	6.3%	5.4%	100.0%	

10) 자극적인 음식 섭취 빈도에 관한 사항

매운 음식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다는 질문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12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보통이다’라고 한 응답자는 남학생의 경우 107명(54.3%), 여학생의 경우 51명(30.0%)으로 전체 응답자의 158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라고 한 응답자는 남학생의 경우 44명(22.3%), 여학생의 경우 89명(52.4%)으로 전체 응답자의 133명(36.2%)으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응답자는 남학생의 경우 46명(23.4%), 여학생의 경우 30명(17.6%), 응답자의 76명(20.7%)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아니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운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위암 등의 질환이 나타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남학생에게는 특히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높았고 여학생과 2학년이상, 기숙사 거주기간 3학기 이상인 경우 ‘아니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 보면 1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통이다’가 높았고 10~20만원인 경우 ‘아니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기타지역의 경우 ‘보통이다’가 경상권의 경우 ‘아니다’의 빈도가 많았다.

Table 12. Frequency of in taking stimulating food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46	107	44	197	$\chi^2=36.654$ df=2 p<0.001
		%	23.4%	54.3%	22.3%	100.0%	
	여	빈도	30	51	89	170	
		%	17.6%	30.0%	52.4%	100.0%	
학년	1학년	빈도	44	88	34	166	$\chi^2=33.848$ df=4 p<0.001
		%	26.5%	53.0%	20.5%	100.0%	
	2학년	빈도	20	42	67	129	
		%	15.5%	32.6%	51.9%	100.0%	
	3학년이상	빈도	12	28	32	72	
		%	16.7%	38.9%	44.4%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37	72	26	135	$\chi^2=26.940$ df=4 p<0.001
		%	27.4%	53.3%	19.3%	100.0%	
	3~4학기	빈도	24	51	63	138	
		%	17.4%	37.0%	45.7%	100.0%	
	5학기이상	빈도	15	35	44	94	
		%	16.0%	37.2%	46.8%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22	34	13	69	$\chi^2=20.001$ df=6 p=0.003
		%	31.9%	49.3%	18.8%	100.0%	
	10~15만원	빈도	20	41	48	109	
		%	18.3%	37.6%	44.0%	100.0%	
	15~20만원	빈도	15	46	49	110	
		%	13.6%	41.8%	44.5%	100.0%	
	20만원이상	빈도	19	37	23	79	
		%	24.1%	46.8%	29.1%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23	43	25	91	$\chi^2=66.796$ df=8 p<0.001
		%	25.3%	47.3%	27.5%	100.0%	
	경상	빈도	13	28	76	117	
		%	11.1%	23.9%	65.0%	100.0%	
	충청	빈도	7	15	10	32	
		%	21.9%	46.9%	31.3%	100.0%	
	호남	빈도	30	64	22	116	
		%	25.9%	55.2%	19.0%	100.0%	
	기타	빈도	3	8	0	11	
		%	27.3%	72.7%	0.0%	100.0%	
전체	빈도	76	158	133	367		
	%	20.7%	43.1%	36.2%	100.0%		

11) 음식을 싱겁게 먹는지에 관한 사항

음식을 싱겁게 먹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1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아니다’ 라는 남학생의 경우 78명(39.6%), 여학생의 경우 94명(55.3%)으로 전체 응답자의 172명(46.9%)이었으며, ‘보통이다’ 라는 응답자가 남학생의 경우 97명(49.2%), 여학생의 경우 64명(37.6%)으로 전체 응답자의 161명(43.9%)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는 남학생의 경우 22명(11.2%), 여학생의 경우 12명(7.1%)으로 전체 응답자의 34명(9.3%)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가 49.2%, 여학생의 경우 ‘아니다’가 55.3%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씀씀이가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아니다’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통이다’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경상권은 ‘아니다’가 64.1%, 그 외 지역에서는 ‘보통이다’의 빈도가 많았다.

Cho JM(2009)의 연구에서도 짠맛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인가’ 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남학생 58.0%, 여학생 43.2%으로 가장 많아 평소 음식의 간을 ‘보통’ 으로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 고 응답한 응답자가 남학생 27.5%, 여학생 31.4%으로 전체 학생의 반절 이상이 음식의 간을 싱겁게 먹기 보다는 약간 짜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서 본 연구에서 음식을 싱겁게 먹는지에 관한 조사 사항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처럼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은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도 크며, 짜게

먹음으로써 걸릴 위험도가 많은 위암, 고혈압 등 각종 알레르기, 여드름을 더욱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웰빙 음식을 선호하는 요즘 시대에 맞게 음식을 싱겁게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able 13. The degree of taking insufficient salted food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22	97	78	197	$\chi^2=9.257$ df=2 p=0.010
		%	11.2%	49.2%	39.6%	100.0%	
	여	빈도	12	64	94	170	
		%	7.1%	37.6%	55.3%	100.0%	
학년	1학년	빈도	19	79	68	166	$\chi^2=7.184$ df=4 p=0.126
		%	11.4%	47.6%	41.0%	100.0%	
	2학년	빈도	7	52	71	130	
		%	5.4%	40.0%	54.6%	100.0%	
	3학년이상	빈도	8	30	33	71	
		%	11.3%	42.3%	46.5%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17	64	53	134	$\chi^2=8.928$ df=4 p=0.063
		%	12.7%	47.8%	39.6%	100.0%	
	3~4학기	빈도	7	63	69	139	
		%	5.0%	45.3%	49.6%	100.0%	
	5학기이상	빈도	10	34	50	94	
		%	10.6%	36.2%	53.2%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14	26	29	69	$\chi^2=17.478$ df=6 p=0.008
		%	20.3%	37.7%	42.0%	100.0%	
	10~15만원	빈도	6	45	58	109	
		%	5.5%	41.3%	53.2%	100.0%	
	15~20만원	빈도	5	52	54	111	
		%	4.5%	46.8%	48.6%	100.0%	
	20만원이상	빈도	9	38	31	78	
		%	11.5%	48.7%	39.7%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17	38	36	91	$\chi^2=32.282$ df=8 p<0.001
		%	18.7%	41.8%	39.6%	100.0%	
	경상	빈도	6	36	75	117	
		%	5.1%	30.8%	64.1%	100.0%	
	충청	빈도	3	18	11	32	
		%	9.4%	56.3%	34.4%	100.0%	
	호남	빈도	7	64	46	117	
		%	6.0%	54.7%	39.3%	100.0%	
	기타	빈도	1	5	4	10	
		%	10.0%	50.0%	40.0%	100.0%	
전체		빈도	34	161	172	367	
		%	9.3%	43.9%	46.9%	100.0%	

12) 선호하는 음식의 조리방법에 관한 사항

선호하는 음식의 조리 방법에 관한 결과 사항이 Table 14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118명(59.9%), 여학생의 경우 71명(41.5%) 전체 응답자의 189명(51.4%)이 ‘볶음, 튀김’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찜, 조림’ 남학생의 경우 47명(23.9%), 여학생의 경우 33명(19.3%)으로 전체 응답자의 80명(21.7%), ‘전’ 77명(20.9%), ‘생 것’ 10명(2.7%), ‘무침’ 12명(3.3%)의 빈도로 조사 되었다.

이는 Cho JM(2009)의 연구에서도 선호하는 조리방법으로 ‘볶음과 튀김’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74.8%, 여학생이 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찜과 조림’ 이 남학생의 경우 20.6%, 여학생의 36.4%으로 나타나 남.여학생이 ‘볶음과 튀김’과 ‘찜과 조림’ 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조리방법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Choi SY(2010)의 연구에서도 기숙사 급식 중 가장 좋아하는 조리법에 대한 결과로 ‘볶음류’, ‘구이’, ‘튀김류’ 가 30.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빈도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볶음류’ 와 ‘튀김류’ 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 한 달 용돈 씀씀이가 1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볶음, 튀김’, ‘찜, 조림’을 선호한 반면에 여학생과 2학년 이상,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 한 달 용돈 씀씀이가 10-20만원인 응답자의 경우 ‘볶음, 튀김’, ‘전’을 선호했다.

출신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지역에서는 ‘볶음’, ‘튀김’이 빈도가 많았고 경상권은 ‘전’의 빈도가 많았다.

Table 14. Cooking method of the food which prefers

			찜 조림	볶음 튀김	전	생 것	무찜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47	118	18	5	9	197	$\chi^2=37.318$ df=4 p<0.001
		%	23.9%	59.9%	9.1%	2.5%	4.6%	100.0%	
	여	빈도	33	71	59	5	3	171	
		%	19.3%	41.5%	34.5%	2.9%	1.8%	100.0%	
학년	1학년	빈도	38	109	9	2	8	166	$\chi^2=55.083$ df=8 p<0.001
		%	22.9%	65.7%	5.4%	1.2%	4.8%	100.0%	
	2학년	빈도	26	55	44	4	1	130	
		%	20.0%	42.3%	33.8%	3.1%	0.8%	100.0%	
	3학년이상	빈도	16	25	24	4	3	72	
		%	22.2%	34.7%	33.3%	5.6%	4.2%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33	83	8	2	10	136	$\chi^2=41.078$ df=8 p<0.001
		%	24.3%	61.0%	5.9%	1.5%	7.4%	100.0%	
	3-4학기	빈도	30	64	40	4	1	139	
		%	21.6%	46.0%	28.8%	2.9%	0.7%	100.0%	
	5학기이상	빈도	17	42	29	4	1	93	
		%	18.3%	45.2%	31.2%	4.3%	1.1%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19	40	5	1	5	70	$\chi^2=43.581$ df=12 p<0.001
		%	27.1%	57.1%	7.1%	1.4%	7.1%	100.0%	
	10-15만원	빈도	15	51	37	2	4	109	
		%	13.8%	46.8%	33.9%	1.8%	3.7%	100.0%	
	15-20만원	빈도	20	55	29	6	1	111	
		%	18.0%	49.5%	26.1%	5.4%	0.9%	100.0%	
	20만원이상	빈도	26	43	6	1	2	78	
		%	33.3%	55.1%	7.7%	1.3%	2.6%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26	57	8	1	0	92	$\chi^2=92.150$ df=16 p<0.001
		%	28.3%	62.0%	8.7%	1.1%	0.0%	100.0%	
	경상	빈도	21	37	55	3	1	117	
		%	17.9%	31.6%	47.0%	2.6%	0.9%	100.0%	
	충청	빈도	6	19	4	2	1	32	
		%	18.8%	59.4%	12.5%	6.3%	3.1%	100.0%	
	호남	빈도	25	70	9	4	8	116	
		%	21.6%	60.3%	7.8%	3.4%	6.9%	100.0%	
	기타	빈도	2	6	1	0	2	11	
		%	18.2%	54.5%	9.1%	0.0%	18.2%	100.0%	
전체	빈도	80	189	77	10	12	368		
	%	21.7%	51.4%	20.9%	2.7%	3.3%	100.0%		

13) 새콤 달콤한 음식을 먹는 빈도에 관한 사항

새콤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가 Table 15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105명(53.0%), 여학생의 경우 69명(40.8%)으로 전체 응답자의 174명(47.4%)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128명(34.9%)이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그렇다’ 라고 한 응답자는 남학생의 경우 43명(21.7%), 여학생의 경우 22명(13.0%), 전체 응답자의 65명(17.7%)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출신 지역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53.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고 여학생은 46.2%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1학년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아니다’가 2.3학년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그렇다’의 빈도가 적게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지역은 ‘그렇다’가 경상권의 경우 ‘아니다’의 빈도가 적게 나타났다.

Table 15. Frequency of in taking sour food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43	105	50	198	$\chi^2=18.180$ df=2 p<0.001
		%	21.7%	53.0%	25.3%	100.0%	
	여	빈도	22	69	78	169	
		%	13.0%	40.8%	46.2%	100.0%	
학년	1학년	빈도	45	80	42	167	$\chi^2=24.318$ df=4 p<0.001
		%	26.9%	47.9%	25.1%	100.0%	
	2학년	빈도	10	61	57	128	
		%	7.8%	47.7%	44.5%	100.0%	
	3학년이상	빈도	10	33	29	72	
		%	13.9%	45.8%	40.3%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37	68	31	136	$\chi^2=23.509$ df=4 p<0.001
		%	27.2%	50.0%	22.8%	100.0%	
	3~4학기	빈도	12	68	57	137	
		%	8.8%	49.6%	41.6%	100.0%	
	5학기이상	빈도	16	38	40	94	
		%	17.0%	40.4%	42.6%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22	30	18	70	$\chi^2=18.456$ df=6 p=0.005
		%	31.4%	42.9%	25.7%	100.0%	
	10~15만원	빈도	13	50	46	109	
		%	11.9%	45.9%	42.2%	100.0%	
	15~20만원	빈도	16	49	44	109	
		%	14.7%	45.0%	40.4%	100.0%	
	20만원이상	빈도	14	45	20	79	
		%	17.7%	57.0%	25.3%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22	44	26	92	$\chi^2=44.457$ df=8 p<0.001
		%	23.9%	47.8%	28.3%	100.0%	
	경상	빈도	7	44	66	117	
		%	6.0%	37.6%	56.4%	100.0%	
	충청	빈도	5	20	7	32	
		%	15.6%	62.5%	21.9%	100.0%	
	호남	빈도	29	58	28	115	
		%	25.2%	50.4%	24.3%	100.0%	
	기타	빈도	2	8	1	11	
		%	18.2%	72.7%	9.1%	100.0%	
전체		빈도	65	174	128	367	
		%	17.7%	47.4%	34.9%	100.0%	

14) 간식 섭취 빈도에 관한 사항

간식을 하루에 몇 번이나 먹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사항이 Table 16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2회 이상’이 남학생의 경우 84명(42.4%), 여학생의 경우 47명(27.8%)으로 전체 응답자의 131명(35.7%), ‘먹지 않는다’가 남학생의 경우 39명(19.7%), 여학생의 경우 85명(50.3%)으로 응답자의 124명(33.8%), ‘1회’가 남학생의 경우 75명(37.9%), 여학생의 경우 37명(21.9%)으로 전체 응답자의 112명(30.5%)으로 나타나 두 군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ee 등(1996)의 연구에서는 34.5%의 학생들이 ‘하루 1-2회’ 간식을 섭취하고 있다고 나타나 간식 섭취를 하루에 ‘2회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42.4%가 ‘2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했고 여학생의 경우 50.3%가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학년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1회’, 2학년 이상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먹지 않는다’의 빈도가 많았다.

한 달 용돈 씬셈이가 1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엔 ‘1회’, 10-20만원인 경우 ‘먹지 않는다’, 20만원 이상인 경우 ‘2회 이상’의 빈도가 많았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권인 경우 ‘먹지 않는다’가 호남권은 ‘1회’, 그 외 지역은 ‘2회 이상’의 빈도가 많았다.

Table 16. Frequency of taking snacks

			1회	2회이상	안먹음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75	84	39	198	$x^2=38.356$ df=2 p<0.001
		%	37.9%	42.4%	19.7%	100.0%	
	여	빈도	37	47	85	169	
		%	21.9%	27.8%	50.3%	100.0%	
학년	1학년	빈도	68	70	29	167	$x^2=40.417$ df=4 p<0.001
		%	40.7%	41.9%	17.4%	100.0%	
	2학년	빈도	26	37	66	129	
		%	20.2%	28.7%	51.2%	100.0%	
	3학년이상	빈도	18	24	29	71	
		%	25.4%	33.8%	40.8%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60	53	23	136	$x^2=34.636$ df=4 p<0.001
		%	44.1%	39.0%	16.9%	100.0%	
	3~4학기	빈도	26	47	65	138	
		%	18.8%	34.1%	47.1%	100.0%	
	5학기이상	빈도	26	31	36	93	
		%	28.0%	33.3%	38.7%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31	27	12	70	$x^2=27.369$ df=6 p<0.001
		%	44.3%	38.6%	17.1%	100.0%	
	10~15만원	빈도	29	32	48	109	
		%	26.6%	29.4%	44.0%	100.0%	
	15~20만원	빈도	22	41	47	110	
		%	20.0%	37.3%	42.7%	100.0%	
	20만원이상	빈도	30	31	17	78	
		%	38.5%	39.7%	21.8%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30	35	26	91	$x^2=87.228$ df=8 p<0.001
		%	33.0%	38.5%	28.6%	100.0%	
	경상	빈도	10	32	75	117	
		%	8.5%	27.4%	64.1%	100.0%	
	충청	빈도	11	13	8	32	
		%	34.4%	40.6%	25.0%	100.0%	
	호남	빈도	57	46	13	116	
		%	49.1%	39.7%	11.2%	100.0%	
	기타	빈도	4	5	2	11	
		%	36.4%	45.5%	18.2%	100.0%	
전체		빈도	112	131	124	367	
		%	30.5%	35.7%	33.8%	100.0%	

15) 섭취빈도가 높은 간식에 관한 사항

간식으로 자주 먹는 식품에 관한 결과 사항이 Table 17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59명(30.3%), 여학생의 경우 77명(46.1%) 전체 응답자의 136명(37.6%)으로 '라면' 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과자'라고 대답한 학생이 남학생의 경우 69명(35.4%), 여학생의 경우 29명(17.4%)으로 전체 응답자의 98명(27.11%), '빵'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30명(15.4%), 여학생의 경우 42명(25.1%)으로 응답자의 72명(19.6%), '초콜릿, 사탕' 전체 응답자의 31명(8.6%), 기타 25명(6.9%)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 한 달 용돈 씬셈이가 1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과자'가 여학생과 2학년 이상,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 한 달 용돈 씬셈이가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라면'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지역별로는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은 '라면'이 호남권과 기타지역에서는 '과자'의 빈도가 많았다.

라면은 1개의 열량이 450kcal 안팎인 데 비해 탄수화물은 65g, 단백질은 9g, 지방은 14g 이어서 '열량은 높으면서 영양은 별로 없는 식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라면과 같이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비만은 물론이고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올 수 있고 뇌세포 손상, 만성 피부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라면, 피자, 햄버거, 치킨, 과자, 튀김 등과 같이 열량이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Table 17. The snacks that eat lots of time

			과자	초콜릿 사탕	빵	라면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69	22	30	59	15	195	$x^2=25.14$ 5 df=4 p<0.001
		%	35.4%	11.3%	15.4%	30.3%	7.7%	100.0%	
	여	빈도	29	9	42	77	10	167	
		%	17.4%	5.4%	25.1%	46.1%	6.0%	100.0%	
학년	1학년	빈도	65	20	19	47	12	163	$x^2=42.10$ 5 df=8 p<0.001
		%	39.9%	12.3%	11.7%	28.8%	7.4%	100.0%	
	2학년	빈도	19	5	38	59	9	130	
		%	14.6%	3.8%	29.2%	45.4%	6.9%	100.0%	
	3학년이상	빈도	14	6	15	30	4	69	
		%	20.3%	8.7%	21.7%	43.5%	5.8%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55	16	12	41	8	132	$x^2=43.18$ 6 df=8 p<0.001
		%	41.7%	12.1%	9.1%	31.1%	6.1%	100.0%	
	3~4학기	빈도	19	7	40	64	8	138	
		%	13.8%	5.1%	29.0%	46.4%	5.8%	100.0%	
	5학기이상	빈도	24	8	20	31	9	92	
		%	26.1%	8.7%	21.7%	33.7%	9.8%	100.0%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빈도	32	8	9	19	2	70	$x^2=38.49$ 2 df=12 p<0.001
		%	45.7%	11.4%	12.9%	27.1%	2.9%	100.0%	
	10~15만원	빈도	19	4	32	44	7	106	
		%	17.9%	3.8%	30.2%	41.5%	6.6%	100.0%	
	15~20만원	빈도	30	9	20	45	5	109	
		%	27.5%	8.3%	18.3%	41.3%	4.6%	100.0%	
	20만원 이상	빈도	17	10	11	28	11	77	
		%	22.1%	13.0%	14.3%	36.4%	14.3%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26	12	14	30	7	89	$x^2=43.19$ 7 df=16 p<0.001
		%	29.2%	13.5%	15.7%	33.7%	7.9%	100.0%	
	경상	빈도	18	2	30	62	5	117	
		%	15.4%	1.7%	25.6%	53.0%	4.3%	100.0%	
	충청	빈도	7	3	6	14	2	32	
		%	21.9%	9.4%	18.8%	43.8%	6.3%	100.0%	
	호남	빈도	43	14	19	27	10	113	
		%	38.1%	12.4%	16.8%	23.9%	8.8%	100.0%	
	기타	빈도	4	0	3	3	1	11	
		%	36.4%	0.0%	27.3%	27.3%	9.1%	100.0%	
전체	빈도	98	31	72	136	25	362		
	%	27.1%	8.6%	19.9%	37.6%	6.9%	100.0%		

16) 외식 빈도에 관한 사항

외식의 빈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사에 대한 결과가 Table 18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일주일에 ‘외식을 2-3회 한다’는 남학생의 경우 69명(34.8%), 여학생의 경우 47명(27.8%), 전체 응답자의 116명(31.6%)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회 이상’ 남학생의 경우 33명(16.7%), 여학생의 경우 74명(43.8%)으로 전체 응답자의 107명(29.2%), 1회가 86명(23.4%), ‘하지 않는다’가 58명(15.8%)으로 나타났다.

이는 IM MY(2010)의 연구에서도 외식빈도에 관한 사항에서 ‘주 2회 이하’ 외식을 하는 학생이 40.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내었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주2-3회’(34.8%), 여학생의 경우 ‘주3회 이상’(43.8%)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1회’, 2학년 이상인 경우 ‘주3회 이상’의 빈도가 많았다.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경우 ‘주2-3회’, 3학기 이상인 경우 ‘주3회 이상’의 빈도가 많았다.

한 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주1회’, 10-15만원, 20만원 이상인 경우 ‘주2-3회’, 15-20만원인 경우 ‘주3회 이상’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의 경우 ‘주1회’, 경상권의 경우 ‘주3회 이상’, 충청권, 호남권, 기타의 경우 ‘주2-3회’의 빈도가 많았다.

Table 18. Frequency of eating out

			1회	주2-3회	주3회 이상	안함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57	69	33	39	198	$\chi^2=33.815$ df=3 p<0.001
		%	28.8%	34.8%	16.7%	19.7%	100.0%	
	여	빈도	29	47	74	19	169	
		%	17.2%	27.8%	43.8%	11.2%	100.0%	
학년	1학년	빈도	54	53	27	32	166	$\chi^2=30.696$ df=6 p<0.001
		%	32.5%	31.9%	16.3%	19.3%	100.0%	
	2학년	빈도	19	41	53	17	130	
		%	14.6%	31.5%	40.8%	13.1%	100.0%	
	3학년이상	빈도	13	22	27	9	71	
		%	18.3%	31.0%	38.0%	12.7%	100.0%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40	48	22	24	134	$\chi^2=25.192$ df=6 p<0.001
		%	29.9%	35.8%	16.4%	17.9%	100.0%	
	3~4학기	빈도	19	46	54	19	138	
		%	13.8%	33.3%	39.1%	13.8%	100.0%	
	5학기이상	빈도	27	22	31	15	95	
		%	28.4%	23.2%	32.6%	15.8%	100.0%	
월용돈	10만원미만	빈도	26	17	13	15	71	$\chi^2=26.811$ df=9 p=0.002
		%	36.6%	23.9%	18.3%	21.1%	100.0%	
	10~15만원	빈도	15	39	36	18	108	
		%	13.9%	36.1%	33.3%	16.7%	100.0%	
	15~20만원	빈도	27	27	42	14	110	
		%	24.5%	24.5%	38.2%	12.7%	100.0%	
	20만원이상	빈도	18	33	16	11	78	
		%	23.1%	42.3%	20.5%	14.1%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34	26	22	9	91	$\chi^2=63.593$ df=12 p<0.001
		%	37.4%	28.6%	24.2%	9.9%	100.0%	
	경상	빈도	16	25	62	15	118	
		%	13.6%	21.2%	52.5%	12.7%	100.0%	
	충청	빈도	8	12	6	6	32	
		%	25.0%	37.5%	18.8%	18.8%	100.0%	
	호남	빈도	26	49	14	26	115	
		%	22.6%	42.6%	12.2%	22.6%	100.0%	
	기타	빈도	2	4	3	2	11	
		%	18.2%	36.4%	27.3%	18.2%	100.0%	
전체		빈도	86	116	107	58	367	
		%	23.4%	31.6%	29.2%	15.8%	100.0%	

17) 외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의 관한 사항

급식대상자들의 외식으로 자주 먹는 선호하는 음식에 관한 결과 사항이 Table 19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외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은 ‘육류’가 남학생의 경우 76명(39.8%), 여학생의 경우 47명(28.5%)으로 전체 응답자의 123명(34.6%)으로 나타났으며, ‘분식류’가 남학생의 경우 49명(25.7%), 여학생의 경우 67명(40.6%)으로 전체 응답자의 58명(32.6%)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탕종류’가 남학생 34명(17.8%), 여학생 54명(14.5%)으로 응답자의 58명(16.3%), ‘튀김류’는 전체 응답자의 40명(11.2%), 기타 19명(5.3%)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변인에서 p 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한 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인 경우 ‘육류’가 많았으며, 10-20만원인 경우는 ‘분식류’의 빈도가 많았다.

응답자의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경상권은 ‘분식류’가 많았고 그 외 지역은 ‘육류’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in&Park(2004)와 Kim&Jung(2001)의 연구에서 외식시 선택하는 음식의 종류에서 ‘한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M MY(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한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패스트푸드’와 ‘분식류’가 선택되어서 외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이 육류로 조사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9. The food which takes frequently in eating out

			육류	탕종류	분식류	튀김류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76	34	49	19	13	191	$x^2=12.20$ 0 df=4 p=0.016
		%	39.8%	17.8%	25.7%	9.9%	6.8%	100.0%	
	여	빈도	47	24	67	21	6	165	
		%	28.5%	14.5%	40.6%	12.7%	3.6%	100.0%	
학년	1학년	빈도	71	21	40	16	12	160	$x^2=21.28$ 0 df=8 p=0.006
		%	44.4%	13.1%	25.0%	10.0%	7.5%	100.0%	
	2학년	빈도	32	22	51	19	5	129	
		%	24.8%	17.1%	39.5%	14.7%	3.9%	100.0%	
	3학년이상	빈도	20	15	25	5	2	67	
		%	29.9%	22.4%	37.3%	7.5%	3.0%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50	17	37	15	11	130	$x^2=14.55$ 3 df=8 p<0.001
		%	38.5%	13.1%	28.5%	11.5%	8.5%	100.0%	
	3-4학기	빈도	35	25	51	19	5	135	
		%	25.9%	18.5%	37.8%	14.1%	3.7%	100.0%	
	5학기이상	빈도	38	16	28	6	3	91	
		%	41.8%	17.6%	30.8%	6.6%	3.3%	100.0%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빈도	33	10	15	6	3	67	$x^2=37.90$ 2 df=12 p<0.001
		%	49.3%	14.9%	22.4%	9.0%	4.5%	100.0%	
	10-15만원	빈도	17	18	46	17	7	105	
		%	16.2%	17.1%	43.8%	16.2%	6.7%	100.0%	
	15-20만원	빈도	34	19	41	8	6	108	
		%	31.5%	17.6%	38.0%	7.4%	5.6%	100.0%	
	20만원 이상	빈도	39	11	14	9	3	76	
		%	51.3%	14.5%	18.4%	11.8%	3.9%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37	18	19	11	4	89	$x^2=51.01$ 0 df=16 p<0.001
		%	41.6%	20.2%	21.3%	12.4%	4.5%	100.0%	
	경상	빈도	17	19	61	16	4	117	
		%	14.5%	16.2%	52.1%	13.7%	3.4%	100.0%	
	충청	빈도	12	6	6	4	3	31	
		%	38.7%	19.4%	19.4%	12.9%	9.7%	100.0%	
	호남	빈도	52	13	26	9	8	108	
		%	48.1%	12.0%	24.1%	8.3%	7.4%	100.0%	
	기타	빈도	5	2	4	0	0	11	
		%	45.5%	18.2%	36.4%	0.0%	0.0%	100.0%	
전체	빈도	123	58	116	40	19	356		
	%	34.6%	16.3%	32.6%	11.2%	5.3%	100.0%		

18) 음주 빈도에 관한 사항

급식대상자들의 술 섭취에 관한 조사 사항에 대한 결과가 Table 20에 나와 있다.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마시냐는 질문에 ‘안한다’는 응답자는 남학생의 경우 72명(36.4%), 여학생의 경우 45명(26.6%)으로 전체 응답자의 117명(31.9%)으로 나타났다.

‘1회’는 남학생의 경우 58명(29.3%), 여학생의 경우 23명(13.6%)으로 전체 응답자의 95명(25.9%), ‘3회 이상’은 남학생이 26명(13.1%), 여학생이 64명(37.9%), 2회는 남학생의 경우 42명(21.2%), 여학생의 경우 23명(13.6%)으로 응답자의 65명(17.7%)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반절 이상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주 1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출신 지역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안한다’가 많았으며, 여학생과 2학년 이상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는 ‘주3회 이상’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안한다’가 경상권과 기타의 경우 ‘주3회 이상’, 호남권은 ‘주1회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20. Frequency of drinking

			1회	주2-3회	주3회 이상	안 함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58	42	26	72	198	$\chi^2=30.369$ df=3 p<0.001
		%	29.3%	21.2%	13.1%	36.4%	100.0%	
	여	빈도	37	23	64	45	169	
		%	21.9%	13.6%	37.9%	26.6%	100.0%	
학년	1학년	빈도	52	33	21	60	166	$\chi^2=26.100$ df=6 p<0.001
		%	31.3%	19.9%	12.7%	36.1%	100.0%	
	2학년	빈도	29	24	41	36	130	
		%	22.3%	18.5%	31.5%	27.7%	100.0%	
	3학년이상	빈도	14	8	28	21	71	
		%	19.7%	11.3%	39.4%	29.6%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45	26	16	47	134	$\chi^2=21.524$ df=6 p=0.001
		%	33.6%	19.4%	11.9%	35.1%	100.0%	
	3-4학기	빈도	31	26	40	41	138	
		%	22.5%	18.8%	29.0%	29.7%	100.0%	
	5학기이상	빈도	19	13	34	29	95	
		%	20.0%	13.7%	35.8%	30.5%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23	11	9	28	71	$\chi^2=22.912$ df=9 p<0.001
		%	32.4%	15.5%	12.7%	39.4%	100.0%	
	10-15만원	빈도	21	22	31	34	108	
		%	19.4%	20.4%	28.7%	31.5%	100.0%	
	15-20만원	빈도	23	14	36	37	110	
		%	20.9%	12.7%	32.7%	33.6%	100.0%	
	20만원이상	빈도	28	18	14	18	78	
		%	35.9%	23.1%	17.9%	23.1%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29	17	14	31	91	$\chi^2=90.418$ df=12 p<0.001
		%	31.9%	18.7%	15.4%	34.1%	100.0%	
	경상	빈도	10	20	61	27	118	
		%	8.5%	16.9%	51.7%	22.9%	100.0%	
	충청	빈도	9	8	1	14	32	
		%	28.1%	25.0%	3.1%	43.8%	100.0%	
	호남	빈도	43	20	9	43	115	
		%	37.4%	17.4%	7.8%	37.4%	100.0%	
	기타	빈도	4	0	5	2	11	
		%	36.4%	0.0%	45.5%	18.2%	100.0%	
전체		빈도	95	65	90	117	367	
		%	25.9%	17.7%	24.5%	31.9%	100.0%	

19) 유제품 섭취 빈도에 관한 사항

급식대상자들의 우유, 치즈, 유산균 음료 등의 유제품 섭취 빈도에 관한 결과 사항이 Table 21에 나와 있다.

유제품 섭취빈도에 대한 질문에 ‘주3회 이상’ 이 남학생의 경우 34명(17.3%), 여학생의 경우 63명(37.3%), 전체 응답자의 97명(26.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한다’ 는 응답자가 남학생 50명(25.4%), 여학생 45명(26.6%)으로 전체 응답자의 95명(26.0%), ‘주2-3회’ 가 92명(25.1%), 1회가 82명(22.4%)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의 경우 ‘주2-3회’ 가 여학생과 2학년 이상인 경우 ‘주3회 이상’ 의 빈도가 많았다.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주1회’, 3-4학기는 ‘안한다’, 5학기 이상인 경우 ‘주3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서 보면 10만원 미만인 경우 ‘주1회’, 10-15만원, 20만원 이상인 경우 ‘주2-3회’, 15-20만원인 경우 ‘안한다’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지역별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안한다’ 가 경상권의 경우 ‘주3회 이상’ 호남권과 기타의 경우 ‘주2-3회’의 빈도가 많았다.

Table 21. Frequency of in taking dairy

			1회	주2-3회	주3회 이상	안함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56	57	34	50	197	$\chi^2=23.163$ $df=3$ $p<0.001$
		%	28.4%	28.9%	17.3%	25.4%	100.0%	
	여	빈도	26	35	63	45	169	
		%	15.4%	20.7%	37.3%	26.6%	100.0%	
학년	1학년	빈도	47	49	28	41	165	$\chi^2=18.924$ $df=6$ $p=0.004$
		%	28.5%	29.7%	17.0%	24.8%	100.0%	
	2학년	빈도	22	27	48	34	131	
		%	16.8%	20.6%	36.6%	26.0%	100.0%	
	3학년이상	빈도	13	16	21	20	70	
		%	18.6%	22.9%	30.0%	28.6%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49	36	21	28	134	$\chi^2=33.784$ $df=6$ $p<0.001$
		%	36.6%	26.9%	15.7%	20.9%	100.0%	
	3-4학기	빈도	23	31	41	43	138	
		%	16.7%	22.5%	29.7%	31.2%	100.0%	
	5학기이상	빈도	10	25	35	24	94	
		%	10.6%	26.6%	37.2%	25.5%	100.0%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빈도	25	14	12	19	70	$\chi^2=18.088$ $df=9$ $p=0.034$
		%	35.7%	20.0%	17.1%	27.1%	100.0%	
	10-15만원	빈도	21	28	37	22	108	
		%	19.4%	25.9%	34.3%	20.4%	100.0%	
	15-20만원	빈도	18	26	32	34	110	
		%	16.4%	23.6%	29.1%	30.9%	100.0%	
20만원이상	빈도	18	24	16	20	78		
	%	23.1%	30.8%	20.5%	25.6%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27	14	20	30	91	$\chi^2=57.341$ $df=12$ $p<0.001$
		%	29.7%	15.4%	22.0%	33.0%	100.0%	
	경상	빈도	10	28	54	26	118	
		%	8.5%	23.7%	45.8%	22.0%	100.0%	
	충청	빈도	10	8	1	13	32	
		%	31.3%	25.0%	3.1%	40.6%	100.0%	
	호남	빈도	32	38	19	25	114	
		%	28.1%	33.3%	16.7%	21.9%	100.0%	
	기타	빈도	3	4	3	1	11	
		%	27.3%	36.4%	27.3%	9.1%	100.0%	
전체	빈도	82	92	97	95	366		
	%	22.4%	25.1%	26.5%	26.0%	100.0%		

20) 커피 섭취 빈도에 관한 사항

급식대상자들의 커피 섭취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가 Table 22에 나와 있다.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냐는 질문에 ‘안 마신다’는 남학생의 경우 104명(52.5%), 여학생의 경우 59명(34.9) 전체 응답자의 163명(44.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회’ 또는 ‘3잔 이상’이 20.2%, 2-3회가 74명(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 JM(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커피 섭취 빈도에 관한 사항에서 남학생의 61.6%, 여학생의 43.2%가 ‘안 마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회’가 남학생 28.2%, 여학생 45.8%, ‘2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 10.7%, 여학생 11%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 3학년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안마신다’가 여학생과 2학년의 경우 ‘3잔 이상’의 빈도가 적었다.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 한 달 용돈 씬셈이가 1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인 경우 ‘3잔 이상’이 3학기 이상인 경우, 10-20만원인 경우 ‘1잔’의 빈도가 적게 나타났다.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1잔’이 경상권은 ‘3잔 이상’ 호남권과 기타는 ‘안 마신다’의 빈도가 많았다.

Table 22. Frequency of in taking coffee

			1회	2-3회	3잔이상	안마십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52	32	10	104	198	$\chi^2=63.237$ df=3 p<0.001
		%	26.3%	16.2%	5.1%	52.5%	100.0%	
	여	빈도	22	24	64	59	169	
		%	13.0%	14.2%	37.9%	34.9%	100.0%	
학년	1학년	빈도	44	20	9	93	166	$\chi^2=52.050$ df=6 p<0.001
		%	26.5%	12.0%	5.4%	56.0%	100.0%	
	2학년	빈도	22	25	43	41	131	
		%	16.8%	19.1%	32.8%	31.3%	100.0%	
	3학년이상	빈도	8	11	22	29	70	
		%	11.4%	15.7%	31.4%	41.4%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38	16	10	70	134	$\chi^2=38.029$ df=6 p<0.001
		%	28.4%	11.9%	7.5%	52.2%	100.0%	
	3-4학기	빈도	25	28	42	44	139	
		%	18.0%	20.1%	30.2%	31.7%	100.0%	
	5학기이상	빈도	11	12	22	49	94	
		%	11.7%	12.8%	23.4%	52.1%	10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빈도	17	9	4	41	71	$\chi^2=41.296$ df=9 p<0.001
		%	23.9%	12.7%	5.6%	57.7%	100.0%	
	10-15만원	빈도	18	17	34	39	108	
		%	16.7%	15.7%	31.5%	36.1%	100.0%	
	15-20만원	빈도	17	18	33	43	111	
		%	15.3%	16.2%	29.7%	38.7%	100.0%	
20만원이상	빈도	22	12	3	40	77		
	%	28.6%	15.6%	3.9%	51.9%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34	18	8	30	90	$\chi^2=122.404$ df=12 p<0.001
		%	37.8%	20.0%	8.9%	33.3%	100.0%	
	경상	빈도	7	21	55	35	118	
		%	5.9%	17.8%	46.6%	29.7%	100.0%	
	충청	빈도	13	3	0	16	32	
		%	40.6%	9.4%	0.0%	50.0%	100.0%	
	호남	빈도	16	13	11	76	116	
		%	13.8%	11.2%	9.5%	65.5%	100.0%	
	기타	빈도	4	1	0	6	11	
		%	36.4%	9.1%	0.0%	54.5%	100.0%	
전체	빈도	74	56	74	163	367		
	%	20.2%	15.3%	20.2%	44.4%	100.0%		

21)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급식대상자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결과 사항이 Table 2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42명(21.5%), 여학생의 경우 69명(42.1%), 전체 응답자의 111명(30.9%)으로 ‘음주’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식’이 106명(29.5%)으로 나타났고 ‘편식’ 92명(25.6%), ‘흡연’ 27명(7.5%), ‘기타’ 23명(6.44%)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5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결식’이 여학생과 2학년 이상,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경우엔 ‘음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보면 10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상인 경우 ‘결식’이 10-20만원인 경우 ‘음주’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상권의 경우 ‘음주’의 빈도가 많았고 그 외 지역은 ‘결식’의 빈도가 많았다.

급식대상자들의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와 결식, 과한 음주 등이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지나친 음주는 위, 장관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적당한 음주를 하도록 지도 및 영양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Table 23. The factor causing dietary negatively

			결식	편식	음주	흡연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별	남	빈도	69	56	42	15	13	195	$\chi^2=18.763$ df=4 p=0.001
		%	35.4%	28.7%	21.5%	7.7%	6.7%	100.0%	
	여	빈도	37	36	69	12	10	164	
		%	22.6%	22.0%	42.1%	7.3%	6.1%	100.0%	
학년	1학년	빈도	64	39	34	15	12	164	$\chi^2=22.273$ df=8 p=0.004
		%	39.0%	23.8%	20.7%	9.1%	7.3%	100.0%	
	2학년	빈도	24	36	50	8	7	125	
		%	19.2%	28.8%	40.0%	6.4%	5.6%	100.0%	
	3학년이상	빈도	18	17	27	4	4	70	
		%	25.7%	24.3%	38.6%	5.7%	5.7%	10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빈도	47	31	27	13	12	130	$\chi^2=21.852$ df=8 p=0.005
		%	36.2%	23.8%	20.8%	10.0%	9.2%	100.0%	
	3-4학기	빈도	28	44	48	8	6	134	
		%	20.9%	32.8%	35.8%	6.0%	4.5%	100.0%	
	5학기이상	빈도	31	17	36	6	5	95	
		%	32.6%	17.9%	37.9%	6.3%	5.3%	100.0%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빈도	27	22	15	1	4	69	$\chi^2=29.371$ df=12 p=0.003
		%	39.1%	31.9%	21.7%	1.4%	5.8%	100.0%	
	10-15만원	빈도	21	30	36	13	6	106	
		%	19.8%	28.3%	34.0%	12.3%	5.7%	100.0%	
	15-20만원	빈도	28	27	42	8	4	109	
		%	25.7%	24.8%	38.5%	7.3%	3.7%	100.0%	
	20만원 이상	빈도	30	13	18	5	9	75	
		%	40.0%	17.3%	24.0%	6.7%	12.0%	100.0%	
출신지역	수도권	빈도	31	27	19	8	5	90	$\chi^2=61.985$ df=16 p<0.001
		%	34.4%	30.0%	21.1%	8.9%	5.6%	100.0%	
	경상	빈도	14	22	64	12	5	117	
		%	12.0%	18.8%	54.7%	10.3%	4.3%	100.0%	
	충청	빈도	12	11	6	1	1	31	
		%	38.7%	35.5%	19.4%	3.2%	3.2%	100.0%	
	호남	빈도	45	29	20	5	11	110	
		%	40.9%	26.4%	18.2%	4.5%	10.0%	100.0%	
	기타	빈도	4	3	2	1	1	11	
		%	36.4%	27.3%	18.2%	9.1%	9.1%	100.0%	
전체	빈도	106	92	111	27	23	359		
	%	29.5%	25.6%	30.9%	7.5%	6.4%	100.0%		

2. 학교 급식 메뉴 기호도 조사

1) 국, 찌개, 탕류

국, 찌개, 탕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24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국, 찌개, 탕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에서 설렁탕(3.69), 감자탕(3.69), 삼계탕(3.63), 김치찌개(3.61) 등을 선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오징어국(2.47), 썩갠오뎅국(2.46), 시금치맑은국(2.45), 다시마무채국(2.45), 북어미역국(2.30)의 선호도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기호도 점수가 높은 국, 찌개, 탕류와 낮은 국, 찌개, 탕류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79.810$, $p<0.001$ 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4. Survey of preference about bureau, stew, tangryu

종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설렁탕	3.69	1.22	F=79.810	p<0.001	A
감자탕	3.69	1.22			A
삼계탕	3.63	1.26			A
김치찌개	3.61	1.22			A
순두부찌개	3.52	1.21			A
된장찌개	3.51	1.21			A
부대찌개	3.49	1.24			A
육개장	3.34	1.20			AB
고추장찌개	3.03	1.14			BC
콩나물국	2.94	1.12			BC
유부된장국	2.68	1.09			CD
오징어국	2.47	1.03			D
쭈갓오뎅국	2.46	1.04			D
시금치맑은국	2.45	1.09			D
다시마무채국	2.45	1.00			D
복어미역국	2.30	1.02	D		
합계	3.08	1.26			

2) 주식류

주식류의 기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25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주식류의 기호도 조사에서는 자장면(3.73), 오프라이스(3.62), 냉면(3.60), 쇠고기덮밥(3.58), 스파게티(3.56), 쫄면(3.54), 비빔밥(3.51)등이 기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차조밥(3.17), 보리밥(3.16), 수수밥(3.15), 검정콩밥(2.80)은 기호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기호도 점수가 높은 주식류와 낮은 주식류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14.968$, $p<0.001$ 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5. Survey of preference about jusikryu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장면	3.73	1.083	F=14.968	p<0.001	A
오므라이스	3.62	1.168			AB
냉면	3.60	1.193			AB
쇠고기덮밥	3.58	1.202			ABC
스파게티	3.56	1.204			ABC
쫄면	3.54	1.172			ABC
비빔밥	3.51	1.216			ABC
해물볶음우동	3.48	1.210			ABC
자장덮밥	3.45	1.183			ABC
카레라이스	3.42	1.241			ABC
쌀밥	3.32	1.137			ABC
흑미밥	3.30	1.092			ABC
현미밥	3.28	1.093			BC
차조밥	3.17	1.061			CD
보리밥	3.16	1.067			CD
수수밥	3.15	1.070			CD
검정콩밥	2.80	1.174			D
합계	3.39	1.173			

3) 부찬류

부찬류의 기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26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부찬류의 기호도 조사에서는 계란찜(3.65), 장조림(3.64), 계란말이(3.62), 알감자조림(3.40), 과일샐러드(3.40)는 기호도 조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시금치무침(2.86), 진미채(2.82), 돌나물무침(2.81), 오이생채(2.80), 미역줄기볶음(2.80)등은 기호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기호도 점수가 높은 부찬류와 낮은 부찬류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27.310$, $p<0.001$ 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6. Survey of preference about buchanryu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계란찜	3.65	1.10	F=27.310	p<0.001	A
장조림	3.64	1.10			A
계란말이	3.62	1.08			AB
알감자조림	3.40	1.09			B
과일샐러드	3.40	1.20			B
연두부	3.29	1.15			BC
멸치볶음	3.29	1.09			BC
야채샐러드	3.20	1.20			C
콩나물무침	3.11	1.09			CD
마카로니샐러드	3.11	1.16			CD
부추장떡	3.06	1.11			CD
오징어초무침	2.97	1.14			DE
시금치무침	2.86	1.08			E
진미채	2.82	1.09			E
돌나물무침	2.81	1.08			E
오이생채	2.80	1.14			E
미역줄기볶음	2.80	1.12	E		
합계	3.17	1.157			

4) 김치류

김치류에 관한 기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27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김치류 기호도 조사에서는 배추김치(3.36)가 기호도 점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깍두기(3.25), 곁절이(3.2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열무김치(3.18), 백김치(3.05)가 기호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기호도 점수가 높은 김치류와 낮은 김치류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3.034$, $p=0.010$ 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7. Survey of preference about kimchi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배추김치	3.36	1.14	F=3.034	P=0.010	A
깍두기	3.25	1.09			AB
겉절이	3.21	1.16			AB
총각김치	3.19	1.10			AB
열무김치	3.18	1.12			AB
백김치	3.05	1.12			B
합계	3.20	1.12			

5) 후식류

후식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에 대한 점수 결과 사항이 Table 28에 나와 있다.

후식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에서는 오렌지주스(3.84), 오렌지(3.81), 바나나(3.74), 사과(3.71), 식혜(3.71)등이 기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떡(3.45), 수정과(3.39)는 기호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 급식 대상자들이 과일류와 음료는 후식류로 좋아하는 반면에 떡과 수정과는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기호도 점수가 높은 후식류와 낮은 후식류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4.634$, $p<0.001$ 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8. Survey of preference about husikryu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오렌지주스	3.84	1.20	F=4.634	p<0.001	A
오렌지	3.81	1.19			AB
바나나	3.74	1.22			B
사과	3.71	1.18			B
식혜	3.71	1.21			B
요구르트	3.69	1.21			B
파인애플	3.65	1.21			B
우유	3.63	1.20			B
케익	3.63	1.23			B
떡	3.45	1.24			BC
수정과	3.39	1.24			C
합계	3.66	1.217			

6) 주찬류

주찬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에 관한 점수 결과 사항이 Table 29에 나와 있다.

주찬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 돈가스(3.94), 탕수육(3.91), 돼지갈비찜(3.89), 닭강정(3.89), 닭갈비(3.89), 닭안심튀김(3.88), 안동찜닭(3.88), 너비아니(3.86), 돈육김치볶음(3.77)등은 기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어조림(3.38), 조기구이(3.33)등은 기호도 조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 급식 대상자들이 튀김류, 고기종류를 좋아하는 반면에 생선류는 기호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좋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기호도 점수가 높은 주찬류와 낮은 주찬류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11.093$, $p<0.001$ 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9. Survey of preference about juchanryu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돈가스	3.94	1.12	F=11.093	p<0.001	A
탕수육	3.91	1.11			A
돼지갈비찜	3.89	1.11			A
닭강정	3.89	1.12			A
닭갈비	3.89	1.11			A
닭안심튀김	3.88	1.11			A
안동찜닭	3.88	1.16			A
너비아니	3.86	1.11			A
돈육김치볶음	3.77	1.15			A
제육구이	3.72	1.17			AB
쭈꾸미불고기	3.69	1.20			AB
고등어조림	3.38	1.24			B
조기구이	3.33	1.26			B
합계	3.77	1.168			

3. 기숙사 급식 만족도 조사

기숙사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음식 만족도, 메뉴 만족도, 위생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로 나누어 응답자의 평균값을 구하여 변인별로 t-test, 분산 분석을 실행하였고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식 만족도 조사

음식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사항이 Table 30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각 변인별로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숙사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는 남학생(3.34)이 여학생(2.36)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학년별로는 2학년(2.50)과 3학년 이상(2.61)보다 1학년(3.31)의 응답자가 만족도가 높았다.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가 3학기 이상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씬셈이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2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20만원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타 지역보다 경상권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30.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food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성별	남	197	3.34	0.71	t=10.234	p<0.001
	여	171	2.36	1.10		
학년별	1학년	166	3.31	0.70	F=29.757	p<0.001
	2학년	130	2.50	1.16		
	3학년이상	72	2.61	1.07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135	3.32	0.73	F=21.123	p<0.001
	3-4학기	139	2.62	1.10		
	5학기이상	94	2.65	1.1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70	3.32	0.85	F=9.427	p<0.001
	10-15만원	108	2.65	1.22		
	15-20만원	111	2.67	1.03		
	20만원이상	79	3.11	0.69		
출신지역	수도권	92	3.31	0.80	F=38.138	p<0.001
	경상	117	2.07	1.17		
	충청	32	3.31	0.60		
	호남	116	3.24	0.62		
	기타	11	3.03	0.58		
합계		368	2.88	1.03		

2) 메뉴 만족도 조사

메뉴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 사항이 Table 31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각 변인별로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메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남학생(3.20)이 여학생(2.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3.13)의 응답자가 2학년(2.38), 3학년 이상(2.51)의 응답자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가 3학기 이상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으로 수도권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경상권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31.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menu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성별	남	197	3.20	0.86	t=10.059	p<0.001
	여	171	2.21	1.02		
학년별	1학년	166	3.13	0.86	F=23.105	p<0.001
	2학년	130	2.38	1.13		
	3학년이상	72	2.51	1.05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135	3.16	0.87	F=18.638	p<0.001
	3-4학기	139	2.53	1.08		
	5학기이상	94	2.46	1.09		
한달용돈	10만원미만	70	3.17	0.90	F=5.389	p=0.001
	10-15만원	108	2.57	1.20		
	15-20만원	111	2.63	1.06		
	20만원이상	79	2.76	0.87		
출신지역	수도권	92	3.12	0.88	F=25.122	p<0.001
	경상	117	2.03	1.11		
	충청	32	3.29	0.69		
	호남	116	2.99	0.87		
	기타	11	2.95	0.95		
합계		368	2.74	1.06		

3) 위생만족도 조사

위생 만족도에 관한 결과 사항이 Table 32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각 변인별로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생 만족도에 대해 남학생(3.46)이 여학생(2.53)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 별로는 2학년 이상의 응답자 보다 1학년 이상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숙사 거주기간별로 1-2학기인 경우가 3학기 이상의 응답자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이 10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가 10-20만원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출신지역별로 충청권, 수도권, 호남권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권의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32.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hygien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성별	남	192	3.46	0.72	t=9.139	p<0.001
	여	170	2.53	1.17		
학년별	1학년	162	3.44	0.71	F=25.669	p<0.001
	2학년	128	2.64	1.26		
	3학년이상	72	2.77	1.02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131	3.48	0.74	F=21.475	p<0.001
	3-4학기	137	2.77	1.16		
	5학기이상	94	2.76	1.08		
한달용돈	10만원미만	70	3.42	0.76	F=8.299	p<0.001
	10-15만원	103	2.77	1.27		
	15-20만원	111	2.84	1.09		
	20만원이상	78	3.27	0.76		
출신지역	수도권	91	3.46	0.76	F=36.632	p<0.001
	경상	116	2.20	1.20		
	충청	29	3.54	0.66		
	호남	115	3.38	0.67		
	기타	11	3.02	0.92		
합계		362	3.02	1.06		

4)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사항이 Table 3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각 변인별로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한 달 용돈, 출신지역 모든 변인에서 p값이 <0.001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남학생(3.15)이 여학생(2.20)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 1학년(3.09)이 2학년(2.38), 3학년(2.40) 이상의 응답자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인 응답자가 3학기 이상인 응답자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씀씀이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충청권, 수도권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3.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service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성별	남	191	3.15	0.81	t=9.944	p<0.001
	여	171	2.20	1.01		
학년별	1학년	161	3.09	0.82	F=24.374	p<0.001
	2학년	129	2.38	1.10		
	3학년이상	72	2.40	1.00		
기숙사 거주기간	1-2학기	130	3.16	0.86	F=23.290	p<0.001
	3-4학기	138	2.47	1.03		
	5학기이상	94	2.40	1.00		
한달용돈	10만원미만	69	3.22	0.90	F=8.369	p<0.001
	10-15만원	103	2.50	1.14		
	15-20만원	112	2.59	0.99		
	20만원이상	78	2.67	0.85		
출신지역	수도권	90	3.11	0.92	F=23.742	p<0.001
	경상	116	2.03	1.08		
	충청	29	3.20	0.75		
	호남	116	2.92	0.76		
	기타	11	2.80	0.77		
합계		362	2.70	1.02		

V. 결론 및 제언

대학 급식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대학 구성원들이 영양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의 섭취는 심신의 건강 유지와 질병의 예방은 물론, 학업생활에 있어서와 정상적인 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아침식사의 결실률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음식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음식, 메뉴, 서비스, 위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급식의 만족도 및 품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선호도 및 기호도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대학 기숙사 급식의 전반적인 급식 만족도와 식생활을 파악해봄으로써 기숙사 급식 만족도 향상과 바람직한 급식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는 광주 지역 일부 대학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내용 및 기재요령 등을 설명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390부 중 390부 모두 회수 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37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숙사 급식 식습관 조사와 관련하여 42.5%가 하루에 3끼 모두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9.6%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7.9%는 ‘점심만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2.3학년보다 기숙사 거주기간에서는 1-2학기인 학생이 3학기 이상인 학생들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 씀씀이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인 학생들이 10만원 이상인 학생들보다, 출신지역 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학생들이 경상권이나 호남권 학생들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소 기숙사 급식을 몇 번 이용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하루 3번’이 42.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하루 2번’이 36.1%, ‘하루 1번’ 21.0%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숙사 급식 이용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낮고 기숙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기숙사 급식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없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는 식사라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자는 1.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식하는 끼니에 대해서는 ‘아침’과 ‘저녁’의 빈도가 많았고 ‘모두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1%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아침’이 여학생의 경우 ‘저녁’의 빈도가 많았다.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42.0%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했고 39.1%가 ‘식욕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습관적으로’ 라고 응답한 사람은 8.3%, 기타는 10.6%으로 나타났다.

편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안한다’는 응답자가 46.4%, ‘음식에 따라 조금 한다’는 응답자가 42.9%로 나타났고 ‘많이 한다’는 응답자는 10.7%으로 나타났다.

‘음식에 따라 조금 한다’는 응답은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 한 달 용돈 씀씀이가 1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안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여학생과 2학년 이상,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 한 달 용돈 씀씀이가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편식하는 식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생선’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채소’, ‘고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일’과 ‘유제품’은 낮게 나타났다.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느냐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한 응답자는 43.1%, ‘아니다’라고 한 응답자는 36.2%로 나타났고 ‘그렇다’는 응답자가 20.7%로 나타났다.

음식을 싱겁게 먹느냐에 관한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자가 46.9%,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43.9%로 나타났다. ‘그렇다’라는 응답자는 9.3%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음식의 조리 방법으로 51.4%로 ‘볶음, 튀김’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찜, 조림’(21.7%), ‘전’(20.9%), ‘생 것’(2.7%), 무침(3.3%)순으로 나타났다.

새콤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느냐에 관한 질문에 47.4%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4.9%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라고 한 응답자는 17.7%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53.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고 여학생은 46.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간식을 하루에 몇 번이나 먹는지에 관한 질문에 ‘2회 이상’이 35.7%, ‘먹지 않는다’가 33.8%, ‘1회’가 30.5% 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42.4%가 ‘2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했고 여학생의 경우 50.3%가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학년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1회’, 2학년 이상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먹지 않는다’의 빈도가 많았다.

간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은 37.6%로 ‘라면’ 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자’(27.11%), ‘빵’(19.6%), ‘초콜릿·사탕’(8.6%), ‘기타’(6.9%)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은 ‘육류’와 ‘분식류’가 빈도가 많았다.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마시냐는 질문에 ‘안한다’는 응답자는 31.9%로 나타났다. 1회는 25.9%, 3회 이상은 24.5%, 2회는 17.7%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안한다’가 여학생과 2학년 이상과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주 3회 이상’의 빈도가 많았다.

유제품 섭취빈도에 대한 질문에 ‘주 3회 이상’이 26.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안한다’는 응답자가 26.0%, ‘주 2-3회’가 25.1%, ‘1회’가 22.4%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1학년의 경우 ‘주2-3회’가 여학생과 2학년 이상인 경우 ‘주 3회 이상’의 빈도가 많았다.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경우 ‘주1회’, 3-4학기는 ‘안한다’, 5학기 이상인 경우 ‘주3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씀씀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주1회’, 10-15만원, 2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주2-3회’, 15~20만원인 경우 ‘안한다’의 빈도가 많았다.

출신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안한다’가 경상권의 경우 ‘주3회 이상’ 호남권과 기타의 경우 ‘주2-3회’의 빈도가 많았다.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음주’, ‘결식’이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과 1학년, 기숙사 거주기간이 1-2학기인 응답자의 경우 ‘결식’이 여학생과 2학년 이상, 기숙사 거주기간이 3학기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엔 ‘음주’의 빈도가 많았다.

기숙사 급식 메뉴 기호도 조사에서 국, 찌개, 탕류에 관한 사항에서 ‘설렁탕’, ‘감자탕’, ‘삼계탕’, ‘김치찌개’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징어국’, ‘썩갠오

뎡국’, ‘시금치 맑은국’, ‘다시마 무채국’, ‘북어미역국’ 은 낮게 나타났다.

주식류에 대해서는 ‘자장면’, ‘오프라이스’, ‘냉면’ 등이 높게 나타났고 ‘차조밥’, ‘보리밥’, ‘수수밥’, ‘검정콩밥’ 이 낮게 나타났다.

부찬류의 기호도 조사에서는 ‘계란찜’, ‘장조림’, ‘계란말이’ 가 높게 나타났고 ‘오이생채’ 와 ‘미역줄기볶음’ 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찬류에 대해서는 ‘돈가스’, ‘탕수육’ 이 높게 나타났고 ‘고등어조림’, ‘조기구이’ 는 낮게 나타났다.

기숙사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음식, 메뉴, 위생, 서비스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전 분야에 대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만족도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2학년 이상 보다 1학년 학생들의 만족도의 빈도가 높았다.

기숙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한 달 용돈 씀씀이가 10만원 미만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다양한 메뉴제공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는 장점이 있지만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음식 메뉴에 대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기숙사 급식의 이용횟수가 많아질수록 급식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광주 지역 일부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식습관 및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특히 아침 결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침 결식은 다음 식사에 과식 등의 부적절한 식이섭취를 초래하며, 잦은 간식섭취와 간식으로 ‘라면’ 과 같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와 음식의 약간 짜게 먹는 습관 등 식습관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메뉴 그룹별로 기호도가 높은 항목과 기호도가 낮은 항목이 있으므로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식습관의 확립을 위한 올바른 영양지식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식습관과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적절한 영

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정리해 보면,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외식의 빈도가 높아지고 급식 이용횟수가 낮아짐과 특히 ‘아침’과 ‘저녁’의 결식 빈도가 높아지고 아침결식은 학업능률 저하와 불규칙한 식습관과 다음 식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식사의 규칙성에 대해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고 기숙사 급식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발전방안을 고려해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메뉴 기호도 에서 선호하는 메뉴와 선호하지 않는 메뉴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선호하지 않는 메뉴에 대한 다양한 메뉴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맞게 음식의 질을 보완하여 급식대상자들의 기호를 배려한 식단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으며, 음식뿐만 아니라 메뉴, 서비스, 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

- Beerman KA.(1991), Variation in nutrient intake of college students:A comparison by students' residence. J Am Diet Assoc 91(3):343-344
- Carman, J.M.(1990). "Consumer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An Assessment of the SERVQUAL Dimensions", Journal of Retailing, 66(1): pp 33-5
- Cha YS, Kwak TK, Hong WS(2004), The Analysis of Customers Satisfaction with Food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Food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10(3):309-321
- Choi EN(2010), Quality Evaluation of University Dormitory Foodservice in Chungbuk Province, Major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Cho JM(2009), Foodservice Satisfaction and Dietary Habits and Meal Preference of University Dormitory Residents in Iksan Area
- CIBHuh KB(1990), The present status of nutrition-Related diseases and it's countermeasures,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23(3):197-208
- Fetzer JN., Solt PT., & Mckinney S.1985. Typology of food preferences identified by nutri-food sort. J Am Diet Assoc 85(8):961-965
- Gregoire, M.B., Sneed, J., & Martin, J.M.(1993), School food service: A look to the future. Hospitality Research Journal, 17(1): pp.175-191
- Gronroos C(1984),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4):36-44
- Gunansuk(1995), Of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for the recognition and acceptability of traditional food research, 10(4), 357-366
- Han MJ, Yoon JY, Kim NY, Yoo YH(2004), Satisfaction of Meal and Service Quality in University Foodservice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pp 545-552
- Hong HO, Lee JS(2006), Survey on Korean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focused on the staple food and snack, *Korean Journal Nutrition* 39(7):699-706
- Hudson NR. 2000. Management practice in dietetics. Wadsworth. CA. pp15-17
- Gronroos C(1984),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4):36-44
- Hudson NR. 2000. Management practice in dietetics. Wadsworth. CA. pp15-17
- Gronroos C(1984),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4):36-44
- Jeon EH(2005), Dietary behavior by residence typ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Chungbuk area, *Korean Journal Community Living Science* 16(4):115-123
- Lee YE, Yang IS, Cha JA, Chae IS, Kang HS(1996), School food service in Korea: Investigation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s,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7(3):361-373
- Lee YE(2008), An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School Foodservice in Chungbuk Province, Department of Food and

-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 105–114
- Lee YN, Lee JS, Ko YM, Woo JS, Kim BH, Choi HM(1996), Study on the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by residences.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1(2):189–200
- Lyu ES(1993), A study on the foo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Pusanarea, Korean Journal Dietary Culture 8:43–54
- Lyu ES, Chang HJ(1995), Food Sanitary Practices of the Employees in University and Industry Foodservices,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pp274–281
- McCleary, Kw. & Weaver. P.A.(1982), Improving employee service levels through identifying sources of customer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1(2):85–89
- Min SH, Park OJ(2004), A survey on the Korean food preference, frequency and nutritional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in kangwondo area, Korean Journal Food Culture 19(1):43–51
- IM MY(2010), Assessment Student's Eating Behaviors of Demands Towards niversity Residence Hall Food Services in Gyeongju Area,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 Lee KH, Park ES(2010), School Food Service Satisfaction and Menu Prefer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Iksan, Cheonbuk,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15)1:108–123
- Kang KJ(2001), A study on food behavior to trlated health and daily food intakes of female dormitory students according to BMI.Korean Journal Society Food Science 17(1):43–54
- Kwak TK, Jang ML(1993), Feed evaluation for the improvement of

- diets, Korean Journal Dietetic Association 12:1-4
- Kim HS, Jung JE(2001),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ournal Food Culture 16(2):147-158
- Kim HC(2006), A study on the causal model of students, Korean Journal Academic Society Tourism Management, 20(3):245-262
- Kim HI(2009), Service quality in university food servic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otions and satisfaction studies, Tourism Research, 20(3):pp245-262
- Kim HK, Kim JH(2005), Food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residing in the dormitory in Ulsan area, Korean Journal Society Food Science Nutrition 34(9):1388-1397
- Kim HY(1998), A Study on Total Vitamin C Content Changes in Process of Food Products Flow and Holding Time of Cooked Soybean Sprouts and Fresh Vegetable Salads in Food Service Operations,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pp9-17
- Kim SH(1997), Patterns of dietary fat intake by university female students living in Kongju city: Comparisons among groups divided by living arrangement, Korean Journal Nutrition 30:286-298
- Kim HK, Kim JH(2007), Comparison of awareness and practice on well-being life and related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tion,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12:426-439
- Kim JS, Cho MH(2005), An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Dormitories to enhance the Welfar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pp 331-339
- Kim MH, Bae YJ, Kim YH, Choi MK (2009) The Study of Dietary Habits

-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unch Program for High School Boys and Girls in Chungnam Province, Korea Institute of Food and Nutrition, pp 598–605
- Kim MJ(2008), A Survey of Dining-out Behaviors and Menu Pre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Seoul Area,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 Kookmin University, PP 525–535
- Kim WY(1984),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pp178–184
- Kim YH, Cho YB(2009),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 Servi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the Busan and Kyungnam Area,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1229–5582
- Kim YS, Lyu ES(2003), Evaluation of Patients' Satisfaction with Foodservice of Mid-size Hospitals Busan Area,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2(7):1153–1163
- Kim YS, Yoon JH, Kim HR, Kwon SO(2010),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15(5):582–592
- Kwak Dong If(1995), Quality Management in Food Industry, the National Nutrition, 166(3):18–23
- Kwon SJ, Kim SH, Ly SY(2005), Comparison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sanitary, environment and service of college food service by operating system,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10:331–340
- Iyu ES, Lee KA, Evaluation of Foodservice Quality Performance of Middle Schools in Busan,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21(6):829–837

McCleary, Kw. & Weaver. P.A.(1982), Improving employee service levels through identifying sources of customer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1(2):85–89

Moon SJ, Kim JY(1992), A Study of Value Evaluation for Food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pp25–34

Nam HW, Lee MJ, Lee YM(2002), Consumption and Preference of Seafood, and Desires for the Seafood Utilization in School Lunch Program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pp 1–7

Nelson, P.(1970). "Information of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pp.311–329

Park SH, Kim JA, Lee SY(2004), A study on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service quality in university foodservice, East Asian Journal Society Dietary Life 11:83–91

Park MK, Kim CJ, Yang IS(2007), A case on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y for newly-formed foodservice and the marketing strategies for college union foodservice, Korean Journal Dietetic Association 13:15–29

Park JS, Song YJ, Lee YS, Paik HY(2000), Assess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of service quality in University foodservices,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5:324–332

Park MK, Kim CJ(2006), Identify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attribute for developing on operation proposal on hypothetical college foodservice approached to conjoint analysis,

Korean Journal Dietetic Association 12:390-403

Shin SM(2009), A survey on the foodservice menu preferences of high school boarding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hin MK, Seo ES(1995), A Study on the Food habits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Ik-San Area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225-0937

Song E(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well-being awareness on the satisfaction of university dormitory foodservice, Korean Journal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61:170

Song Eun(2007), Effects of a Quality Assessment of a University Dormitory Foodservice on the Relationship Intention toward the Foodservice, Focusing on the University Dormitories for Female Students in Gwangju,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pp 525-534

Symington LE.,(1987), Guest satisfaction and consideration, In Foodsdevice Standards in Resorts book, NY 49

Tenner AR & DeToro IJ(1992), Total quality management, MA:addison-wesley publishing Co

Yang IS, Weon CH, Kang HS(2000), University residence hall foodservice in Korea: Investigation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s, Korea Journal Community Nutrition 15:69-78

Yang IS, Jang YJ, kim SH, Kim DH(1995), Assessing how the Yonsei University foodservice is perceived by the students: Toward and effective strategy formulation, Korean Journal Dietary Culture 10:327-337

- Yang IS, Shin SY, Lee HY, Lee SJ, Chae IS(2000), Constructing strategic management plan for university foodservice using conjoint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Korean Journal Dietary Culture 15:51-58
- Yang IS, Kang HS, Weon CH(2000), Customer perception levels towards service quality attributes of university residence hall foodservice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Korean Journal Community Nutrition 5(4):662-671
- Yang IS, Lee SJ, Cha JA(2000), Development of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tool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hospital food and nutrition services. Korean Journal Nutrition 33:548-555
- Yang IS, Lee HY, Shin SY, Do HW(200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enu Engineering Technique for University Residence Hall Foodservice,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pp 62-70
- Yang IS, Jang YJ, Kim SH, Kim DH(1995), Assessing how the Yonsei University Foodservice is perceived by the students: Toward an effective strategy formulation,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pp 327-337
- Yang IS, Lee YE, Kim DH(1998), Measuring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towards Contracted vs. Rented University Foodservices ,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pp 423-430
- Yoo YS(1981), A Study on the Survey for Lunch of the College Student in Seoul,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225-0937
- You JS, Chang KJ(1995), A study on nutrition education and eat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6):61-72

Yun, Hye, Wiseongeon(1994), Fast Food Restaurants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on the survey, Korea Institute of Food and Nutrition,
7(4):323-331

Abstract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to the Food Service in the dormitories of some Universities in Gwang Ju, Dining habit and Preferences

HAN AHREUM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general satisfaction to the food service in the dormitorie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by examining the problems in the food service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thod through performing the survey on the general satisfaction, dining habit and preferences for the food service from the students who are dining in the dormitory.

The results from the above are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dining habit survey for the food service in the dormitory, 42.5% answered that they were not dining regularly for 3 meals a day and 39.6% answered for the regularly dining. 17.9% answered that they dined regularly for the lunch only. '3 times a day' was 42.1% for answering how many times of using the food service in

the dormitory usually. Next was 36.1% for 'twice a day' and 21.0% for 'once a day.' The frequency of using by the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female students. The lower grade the students in the shorter residential period was, the more frequent use of the dormitory was shown.

With regard to the reason of using the food service from the school, the most was that they could not go out for lunch or could not provide the lunch box and the students who answered with 'as it was tasty' were the lowest in 1.7%.

The most frequently skipped meals were the breakfast and the dinner. The students who answered for 'not taking the breakfast and dinner' was in 7.1%. For the reason of skipping over the dining, 42.0% answered for the lack of time and 39.1% answered for losing the appetite.

With regard to the question for the eating only what they want, 46.4% answered for 'No' and 42.9% answered for 'a little bit depending on the food.' The 'fish' was the highest for the food of eating only what they want, next was the 'vegetable' and the 'meat.'

With regard to the question for eating the spicy food, the highest answering was 'medium' in 43.1%. 46.9% answered 'No' and 43.9% answered 'medium' for the questioning of eating in bland.

51.4% selected 'stir-fried and fries' for the preferred cooking method. The highest was the answering in 'medium' in 47.4% for questioning whether they tried the sweet and sour food frequently. With regard to the questioning how many time did they take the snack in a day, 35.7% was more than twice, 33.8% was no eating and 30.5% was for once a day. There was no big difference. The popular food for the snack was

'Ramen' in 37.6% and the popular foods for dining out were the 'meat' and 'flour based food.'

With regard to the questioning for how many times of drinking in a week, the students who answered for 'No' was the highest in 31.9%, 'more than 3 times a week' was 26.5% for the questioning the frequency of taking the milk product and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was the next in 26.0%.

The worst factors influencing the dining habit were 'drinking' and 'skipping the meals.' The survey on the preference for the menu in the dormitory revealed that 'Seolnong tang', 'potato soup', 'ginseng chicken soup' and 'kimchi stew' were high. 'Squid soup', 'spinach clean soup', 'kelp and sliced turnip soup', and the 'dried pollack and sea weed soup' were low.

With regard to the preference of staple food, 'Jajang noodle', 'omlet', 'cold noodle' were high, and 'millet rice', 'barley rice', 'sorghum rice' and 'black bean rice' were low.

With regard to the preference of the sub side dishes, 'Steamed egg', 'beef boiled down in soy sauce' and 'egg roll' were high and 'fresh sliced cucumber' and 'sea weed stem fries' were low.

With regard to the Kimchi, 'cabbage kimchi', 'radish kimchi' were high.

With regard to the Dessert 'orange juice', 'orange', 'banana', 'apple', 'sikhye' were high.

With regard to the main side dishes, 'pork cutlet', 'fried meat' were high, and 'boiled mackerel' and 'yellow corvina roast' were low.

The survey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the food service in the

dormitory in classification of food, menu, hygiene and service revealed that the male student was higher than female students, the satisfaction by the freshmen was higher than beyond the sophomore and the shorter the residential period in the dormitory was, the higher satisfaction was.

The survey result on the overall satisfaction, dining habit and preference for the food service to the students who use the food service from some dormitories in Gwang Ju showed that there were cases of not taking the regular dining and more frequent skipping the breakfast was shown especially. Many problems in the dining habit were identified from frequent snack and the taking of instant food such as 'ramen' for snack and the habit of taking salty food.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correct nutrition knowledge to improve the satisfaction to the food service to the students and to establish the right dining habit because there were the items of high preference and items in each menu category.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per nutritional education for each gender of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is necessary becaus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ining habit and the pre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Consequently, the summary of the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result in the above concludes that the consistent improvement is necessary in menu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menu and modification of the food quality in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satisfaction and developmental method for enhancing the using rate of food service in the dormitory and amending the food quality. The effort to improve the overall satisfaction to the menu, service, hygiene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food.

부록-설문지

광주지역 일부 대학 기숙사의 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식습관 및 선호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연구논문을 위하여 “광주지역 일부 대학 기숙사 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식습관 및 선호도 조사”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논문의 자료로서만 활용됩니다.
본인이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지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일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연구자: 한아름

◆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 2 여

2) 귀하의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3) 귀하께서 기숙사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 1 1-2학기 2 3-4학기 3 5학기 4 기타()

4) 귀하의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만원 미만 2 10-15만원 3 15-20만원 4 20-30만원
 5 40만원 이상

5) 귀하의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 경북지역(대구,대전) 3 부산, 울산, 경남
 4 전남, 전북(광주,목포) 5 기타지역()

◆ 다음은 귀하의 식습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 하루에 3끼 모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십니까?

- 그렇다 점심만 규칙적 불규칙적이다

2) 평소 기숙사 급식은 몇 번 정도 이용하십니까?

- 하루3번 하루2번(3번 문항으로) 하루1번(4번 문항으로)
 가지 않는다

3) 왜 기숙사 급식을 하루에 2회 이용하십니까?

- 맛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므로
 기타()

4) 왜 기숙사 급식을 하루에 1회 이용하십니까?

- 맛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므로
 기타()

5)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 외부로 나갈 수 없어서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없어서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는 식사라서 가격이 저렴해서
 맛이 좋아서

6) 결식하는 끼니는 주로 어디에 해당 합니까?

-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해당 없음

7)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간이 부족해서 식욕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기타 ()

8) 편식 여부는?

- 음식에 따라 조금 안 한다 많이 한다

9) 편식하는 식품의 종류는?

- 1 채소 2 생선 3 고기 4 과일 5 유제품

10) 매운 음식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인가요?

-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11)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신가요?

-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12) 어떤 조리방법의 음식을 선호하십니까?

- 1 찜, 조림 2 볶음, 튀김 3 전 4 생 것
 5 무 찜

13) 새콤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이신가요?

-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14) 간식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먹나요?

- 1 1회 2 2회 이상 3 안 먹음

15)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 1 과자 2 초콜릿,사탕 3 빵 4 라면 5 기타

16) 외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 1 1회 2 주2-3회 3 주 3회 이상 4 안 함

17) 외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 1 육류 2 탕 종류 3 분식류 4 튀김류 5 기타

18)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마시나요?

- 1 1회 2 주2-3회 3 주 3회 이상 4 안 함

19) 우유, 치즈, 유산균 음료 등의 유제품을 일주일에 몇 번 먹나요?

- 1회 주2-3회 주 3회 이상 안 함

20) 커피는 하루에 몇 잔 마시나요?

- 1회 2-3회 3잔 이상 안 마심

21)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결식 편식 음주 흡연 기타

◆ 학교 급식 메뉴 기호도에 관한 조사 사항입니다.

주식류에 관한 기호도 조사 문항입니다. 각 메뉴명 별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항목	메뉴명	매우싫어함	싫어함	보통임	좋아함	매우좋아함
그룹 I 주식류	쌀밥					
	현미밥					
	흑미밥					
	검정콩밥					
	보리밥					
	차조밥					
	수수밥					
	비빔밥					
	오므라이스					
	쇠고기덮밥					
	자장덮밥					
	카레라이스					
	스파게티					
	쫄면					
	냉면					
	해물볶음우동					
	자장면					

◆ 국, 찌개, 탕류에 관한 기호도 조사 문항입니다. 각 메뉴명 별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항목	메뉴명	매우싫어함	싫어함	보통임	좋아함	매우좋아함
그룹 II 국 / 찌개 / 탕류	북어미역국					
	쭈갓오뎅국					
	오징어국					
	유부된장국					
	콩나물국					
	다시마무채국					
	시금치맑은국					
	육개장					
	고추장찌개					
	부대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감자탕					
	삼계탕					
설렁탕						

◆ 부찬류에 관한 기호도 조사 문항입니다. 각 메뉴명 별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항목	메뉴명	매우싫어함	싫어함	보통임	좋아함	매우좋아함
그룹IV 부찬류	과일샐러드					
	마카로니					
	야채샐러드					
	콩나물무침					
	돌나물무침					
	시금치무침					
	오이생채					
	미역줄기볶음					
	오징어초무침					
	진미채					
	연두부					
	계란말이					
	계란찜					
	장조림					
	알감자조림					
	멸치볶음					
	부추장떡					

◆ 김치류, 후식류에 관한 기호도 조사 문항입니다. 각 메뉴명 별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항목	메뉴명	매우싫어함	싫어함	보통임	좋아함	매우좋아함
그룹 V 김치류	배추김치					
	겉절이					
	각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그룹 VI 후식류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사과					
	요구르트					
	우유					
	오렌지주스					
	수정과					
	식혜					
	케익					
떡						

◆ 주찬류에 관한 기호도 조사 문항입니다. 각 메뉴명 별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항목	메뉴명	매우싫어함	싫어함	보통임	좋아함	매우좋아함
그룹Ⅲ 주찬류	닭갈비					
	닭강정					
	너비아니					
	돼지갈비찜					
	탕수육					
	닭안심튀김					
	안동찜닭					
	돈가스					
	고등어조림					
	조기구이					
	제육구이					
	쭈꾸미불고기					
	돈육김치볶음					

급식 만족도에 관한 조사 사항입니다.

- ◆ 다음 설명은 음식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질 문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제공되는 음식의 맛					
2	영양가를 고려한 식단					
3	제공되는 음식의 신선도					
4	제공되는 음식의 적정온도					
5	1인분의 적정한 양					
6	음식의 외관(모양, 색)					

◆ 다음 질문은 메뉴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질 문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제공되는 메뉴의 다양성					
2	선호메뉴의 제공빈도					
3	계절식품 이용의 적절성					
4	후식이 제공됨					
5	제공되는 반찬 가지 수					
6	메뉴가 품질되지 않음					

◆ 다음 설문은 위생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질 문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제공되는 음식의 위생					
2	식기, 조리도구의 위생					
3	식탁 및 의자의 위생					
4	조리실의 위생					
5	조리종사자의 복장위생					
6	식기의 반납구 청결					

◆ 다음 설문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질 문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배식의 신속, 정확성					
2	조리종사자들의 친절함					
3	급식이 운영되는 시간					
4	대기하는 시간					
5	불만사항 처리사항					
6	식당의 난방 및 냉방상태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논문을 마치고 “감사의 글”을 접하고 보니 지난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이 떠오릅니다. 너무 쏠살같이 지나가 아쉬움이 많고 때로는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와 상관없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대학원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앞만 보고 달려와 놓치고 잃은 것도 많은 시간이었고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해 많은 미련과 더 잘하지 못한 후회가 남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만큼 제 인생 전체를 볼 때 가장 큰 발전과 발돋움의 기간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하고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시간이었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만난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 하고 2년간의 노력의 결실인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서 제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배움의 과정을 통해 얻은 조그마한 하나의 결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마다 저에게 따뜻한 관심과 용기와 사랑을 주신 김혜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제 논문의 심사를 맡으셔서 부족한 논문을 다듬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한영숙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외에 고성희 교수님, 안홍석 교수님, 이명숙 교수님, 나혜경 교수님, 윤현근 교수님, 이승민 교수님, 표영희 교수님 등 이경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학원 생활을 함께 해준 선영 언니, 순영 언니, 소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도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투자를 아낌없이 해주신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대학원 생활의 마지막 결실인 이 논문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졸업이라는 하나의 계단을 올라왔고 아직도 제가 올라가야 할 계단은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위에 모든 분들 실망시키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며, 하루하루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11년

한아름 올림